

- 2017년
- 9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뜨거운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름답게
살아라

모담지기 현장취재

제61호 “시작”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4월

008 꽃피는 춘삼월, 제8기 모담지기 위촉식 현장을 들여다보다 _ 김다래 모담지기

012 신나고 재미있고 흥겹고, 감각을 깨우러 고고고!! _ 강은숙 모담지기

016 종이 박스로 쌓는 나의 미래성 -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_ 송은호 모담지기

제62호 “감성” 만개하는 봄 5월

021 책을 보고 그 너머 삶을 보는 곳, ‘책 문화 공간 봄’을 다녀오다 _ 김다래 모담지기

024 심심쟁이 아이들과 즐거운 토요일 보내기 - 프렌다이 스쿨[Friend+Daddy] _ 송은호 모담지기

제63호 “삶” 우리가족, 우리 동네,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담은 6월

02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한울> 딸에게 ‘엄마’라는 삶을 건네다 _ 김한경 모담지기

03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문화놀이터 가을> 아빠와 딸이 대화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요리’를 추천한다 _ 정두리 모담지기

035 내면의 억압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춤의 힘, ‘콜롬비아 - 몸의 학교 워크숍’을 다녀오다 _ 김다래 모담지기

제64호 “창조” 문화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7월

038 <경자씨와재봉틀Ⅳ-청춘전웨이> 경자씨와 재봉틀, 그 네 번째 이야기 _ 김한경 모담지기

04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평화예술교육센터> ‘내 안의 나’를 만나서 내뿜는 소리의 향연 _ 정두리 모담지기

제65호 “공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8월

04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마을순원구소> <양림 숲, 예술과 만나다> 결과발표회 현장스케치 _ 강은숙 모담지기

049 통신원-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 속으로 GO! _ 김다래 모담지기

제66호 “조화” 다름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9월

054 <2017 어린이놀이도시Ⅲ-어린이목수축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물, 나무 아지트 만들기 _ 강은숙 모담지기

05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극단 토박이> 나의 빼빼이들과 아우라지를 나눕니다. _ 정두리 모담지기

제67호 “경험” 각양각색 다채로운 10월

062 <인큐베이팅-평공나무문화예술협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중년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다 _ 김한경 모담지기

068 <인큐베이팅-더블루이어즈> 넌 내 개 반했어, 세이브 더 펫 _ 강은숙 모담지기

07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조선대학교 미술관> <꿈꾸담 ‘역사를 품은 예술’>이 들려주는 소중한 우리 문화의 가치 _ 김다래 모담지기

제68호 “축제” 다함께 즐거운 11월

076 <아트날라리-놀 때가 제일 예뻐!>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술적 일탈을 꿈꾸다! _ 김한경 모담지기

08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무로협동조합> 나무로 만드는 나만의 행복 _ 송은호 모담지기

085 <인큐베이팅-놀이요점> 우리는 마을 모험가! _ 강은숙 모담지기

088 <창의예술학교> 창의 예술로 하나 되어 함께 하는 시간 _ 김다래 모담지기

제69호 “행복”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했던 우리 12월

091 <창의예술학교> 2017년 창의예술학교를 졸업합니다 _ 정두리 모담지기

094 <창의예술학교-문화약방> 2017 창의예술학교 재미마중 놀이학교 반짝반짝 끝든 에이지, 다시 청춘이다! _ 김한경 모담지기

099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광주시민방송> Video Kill the Radio Star? _ 송은호 모담지기

현장의 작은 소리를 큰 울림으로 담았습니다

통신원 뉴스레터 결과자료집 “울림 8”

제8기 통신원 ‘모담지기’ 여섯 명은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가 되어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진 진솔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고 영상으로 담아 매달 뉴스레터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그 흔적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울림 8’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해온 2017년 지원사업들의 이야기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골고루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주역들이 해온 노력들이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보다 큰 울림이 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작은 것도 큰 귀로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바쁜 가운데에도 통신원들의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승낙해주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준 문화예술교육 단체 대표와 기획자, 강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생동감있게 전해준 제8기 통신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제 운영사업

광주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원들의 현장취재 및 매개자 인터뷰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 해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온라인 구독자 발송 및 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립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집적하고, 매달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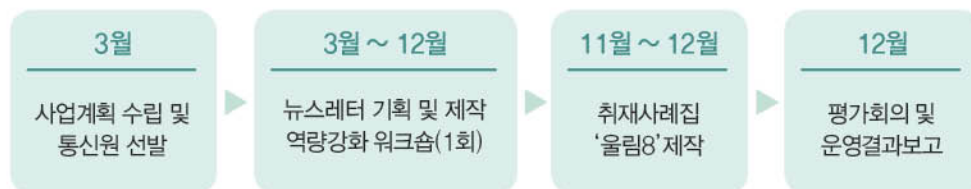
사업개요

사업명 : 통신원제 운영사업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활동사항 : 일반 통신원 5명, 영상 통신원 1명
주최·주관 : (재)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내용

- 통신원 선발, 매달 기획회의 진행
- 광주 문화예술교육 현장취재 및 기획자 인터뷰, 전문가 칼럼 취합
-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매달 뉴스레터 구독신청자 10,000여명 발송)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허브사이트 -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소식 공유

추진일정



추진방향

-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프로그램·공간과 정책·이슈 등을 집적함으로써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와 방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역 활동가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집적하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축
- 통신원들이 취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 성장하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사이트 및 뉴스레터가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홍보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와의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각종행사 홍보지원
- 편집회의를 통한 뉴스레터 전체 콘셉트·코너 확정 및 지난 뉴스레터 평가
- 사이트 활성화를 통해 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 제고



‘통신원’이란?

광주 문화예술교육정보 활동가!

통신원은 단순히 취재하고 기사작성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교육지원센터와 교육현장의 소통의 매개자이자,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제8기 통신원 ‘모담지기’ 소개

강은숙, 김다래, 김한경, 송은호, 정두리, 정광식(영상)

활동기간

2017년 3월 ~ 12월

활동내용

-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취재
-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 취재글 모음집 「울림8」발간
- 기획 및 편집회의 진행, 재단과 센터 행사 및 역량강화워크숍 참석

활동혜택

- (재)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명의 위촉장 수여
- 원고 게재 및 각종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사례비 지급
-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행사 우선 참여 가능





모담지기를 소개합니다.



강은숙

점심시간, 툭툭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창밖은 봄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광주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단체 영화 관람이 문화예술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통신헌에 지원하기 위해 찾아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채로웠어요. 까면 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양파' 같다고나 할까요? 한 겹 한 겹 알차게 구성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어요. 문화예술로 사람들의 감성에 '톡톡' 문 두드려주는 다양한 교육과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모르고 넘어간 게 아까울 정도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좋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축제 소식을 전하는 소식통으로 한 걸음 내딛으려고 합니다. 봄비와 함께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헌, 모담지기 강은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다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의 말이자 아울러 지난 시간 제 삶의 신념을 대변해주는 말과도 같습니다. 2년 전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고흐가 열렬한 힘을 다해 그려낸 자화상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던 적, 바티칸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던 일, 시인 이성복의 아포리즘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를 읽으며 마음이 환기를 찾고 치유를 받았던 순간들은 모두 저에게 귀히 여겨야 할 값진 생의 단면들입니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은 삶의 곳곳에 뿌리내려 제 삶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주었으며, 나아가 타인과 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통의 창과도 같았습니다. 문화예술이 지닌 힘과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힘과 가치를 믿으며, 문화예술이 세상의 밝은 변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절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일부가 누리는 소수의 특권적인 교육이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띄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통신헌으로 활동하는 일 또한 제 삶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눈에 담고, 글을 쓰며 그들이 전하는 울림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한경

광주를 문화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주는 문화 도시가 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광주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광주가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기 통신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나를 포함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문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화란 당신이 타고 자란 동네고, 먹던 음식이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이고, 지금도 당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문화예술이 있다고 '이미 아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호

'차가운 공식들 속 따뜻한 예술을 찾다.'

저의 전공은 원래 철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깊이 있게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미술관과 전시회를 다니면서 꾸준히 인문학과 문화, 예술분야를 즐기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메타포에 큰 매력을 느꼈고, 엉뚱하게도 의학 쪽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선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하고, 딱딱한 화학 공식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 질병의 관점에서 약학이라는 학문은 문화, 예술 분야만큼이나 인간의 삶에 가까이 존재하는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지루한 강의를 보고 '내가 한번 강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 대학생들의 모습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재조명한 '대학생, 다시 생각하다.'란 강연을 직접 준비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문화, 예술 분야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두꺼운 전공서적을 들고 다닐 때 철학서와 소설책을 끼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약학이라는 분야를 가깝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대중서적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두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봄도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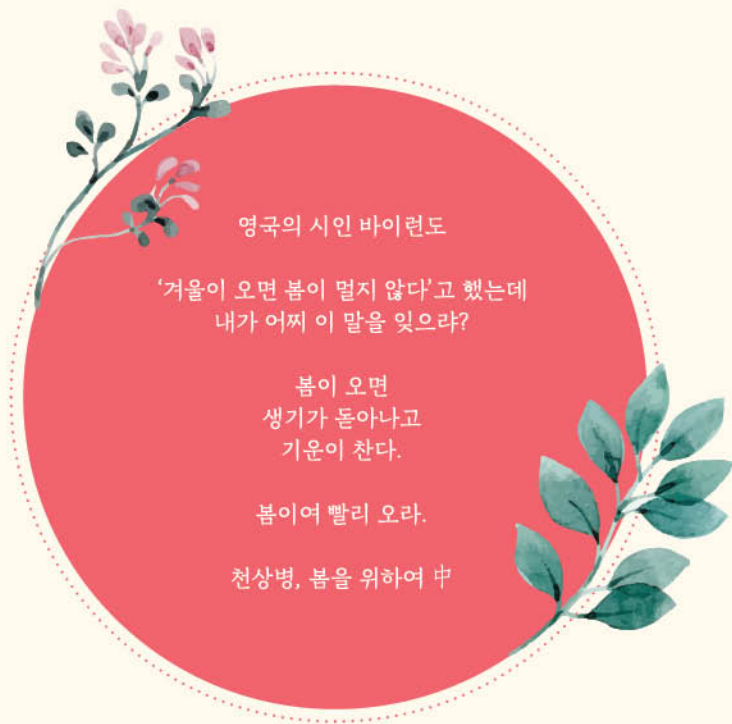
새벽녘 닭이 아침이 찾아왔다고 꼬꼬댁 우는 것처럼 광주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모담지기가 되어 소개합니다.

처음 시작은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광주 전반에 조금씩 깊숙하게 빠져들었습니다. 스펙을 쌓으면서도 취업이 되고 나서도 항상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좋은 기회에 '모담지기'를 발견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낙서부터 시작해서 독서, 연극보기, 영화보기 등 주변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치여 조금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글을 쓰기위해 발산마을, 앙림팽건마을 등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다보니 광주의 문화가 보이고 새롭게 탄생하는 곳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여기 예쁘대!' 라는 소문으로 찾아가본 곳에서 대화를 나눈 사장님이 하는 말 중에 "건축학과인데 돈보다는 청춘 3명이 옛 것을 지키기 위해 주택을 개조했어요." 라는 강한 신념이 가득한 그 말에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나 또한 청춘인데!' 후회 없이 살고자합니다. 광주에 볼거리, 놀거리,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청춘들이 품은 열정을, 청춘들의 숨어있는 열정을 깨워 벼들에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10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잊혀져도 오늘 다시 힘차게 새벽녘을 울리는 수탉이 되고자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 수탉과 대화 나누는 힘찬 시작을 함께 합시다!



꽃피는 춘삼월, 제8기 모담지기 위촉식 현장을 들여다보다.

김다래 모담지기



바야흐로 봄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사방에 꽃향기가 난만하고 초록의 새순들이 가득한 봄. 시인 천상병은 봄이 오면 생기가 돌아나고 기운이 찬다고 했다. 생기가 돌아나고 기운이 차는 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시작의 계절을 맞아 부지런히 봄을 맞이하는 식물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따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도 또 한 번의 생기 넘치고 기운 찬 봄이 찾아왔다. 꽃피는 춘삼월, 제8기 모담지기 위촉식 현장을 들여다보자.

지난 3월 2일, 8기 통신원들의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졌다. ‘벗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모담지기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소식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임무를 맡았다.

통신원들의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월 1회의 기획회의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글과 사진을 담은 기사를 작성한다. 작성된 기사는 매월 10,000여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온라인 뉴스레터에 게재된다. 또한 우수 기사들은 센터 통합 결과자료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기회는 물론, 광주 문화재단 및 광주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먼저 김홍석 실장의 위촉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올 한해 모담지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낼 반가운 얼굴들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통신원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에 관한 말도 덧붙였다.

문화란 60년을 함께 하면 공유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며, 광주 지역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띄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을 강조했다.



위촉식 수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지닌 통신원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짧게 진행되었다. 간단한 통성명을 시작으로 통신원에 지원한 계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다짐 등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넘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저마다의 열정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통신원 활동을 통해 얻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목표들 또한 저마다 다양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영상 촬영만을 집중적으로 맡아 전담하는 통신원이 선발되었다. 글과 사진 위주의 기사에서 나아가 영상을 통해 보다 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소개 시간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통신원의 역할과 기사 작성 노하우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취재를 진행함에 있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팁은 물론, 아울러 작년 한해 활동했던 7기 통신원들의 톡톡 튀는 기사들을 바탕으로 시선을 끄는 기사, 매력적인 기사를 작성해내는 노하우까지 전달 받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17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비전과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올 한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비전과 사업은 바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하모니타워’를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포럼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센터의 역할 모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큐베이팅 및 기획자 양성, 통신원제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빛과 시작’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3월의 기획회의도 진행되었다.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의견을 공유하며 취재 방향과 취재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나 ‘빛과 시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올 해 센터 내에 개관한 홀로그램 극장에 대해서 모두들 열렬한 관심을 갖고 통신원 모두가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통신원들이 작성한 기사는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작이 되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소식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 (http://www.gjarte.or.kr/user/board/lists/board_cd/newsletter) 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정기 구독 신청 또한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또 한 번의 생기 넘치고 기운 찬 봄이 왔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모인 모담지기들의 애정 어린 기사를 기대해보자.

신나고 재미있고 흥겹고, 감각을 깨우려 고고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놀이를
움직이는 아이들, 아니마시아 여행!

강은숙 모담지기



추웠던 겨울이 물러나고 3월, 봄이 찾아왔다. 춘곤증 때문에 한창 하품이 나오는 일요일 오후 두 시에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창작실체험실은 아이들의 번뜩이는 눈과 웃음으로 가득하다.

‘애니메이션은 어른이 만들어야 한다.’,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놀이를 움직이는 아이들, 아니마시아’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늘 수업은 아니마시아와 첫 만남, 그리고 아이들의 감각 깨우기이다. 3, 4학년 13명의 아이들이 함께 ‘아니마시아’ 수업을 시작했다. 아시아의 놀이를 접하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이해, 그리고 감각을 키우는 아이들을 만나보자!



환한 미소를 띠며 인사하는 12주간 아이들의 감정을 이끌어 내주실 담당선생님 ‘련쑈C’이다. 첫 만남이라 어색해 쑥스러워하는 휘서에게 “푸른 나무 은하수~”를 부르며 손뼉 치기를 하거나, 우정박수를 치자며 중앙으로 이끌어 어색함을 푸는 련쑈C의 모습은 능숙하다. 처음엔 쑥스러워했던 아이들이 련쑈C의 눈 마주침에, 손뼉 치기에, 우정박수에 점점 긴장을 풀고, 어느새 표정이 밝아진다.

처음 만나 머쓱하기도, 쑥스럽기도 한 아이

들이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련쑈C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했다. 감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목적이라 그런지 몸으로 친해지기 활동이 시작되었다. 박자에 맞춰 자기소개하기, 케이크 자르기 놀이, 우정박수 놀이를 통해 부끄러움을 타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제 만난 친구처럼 손을 꼭 잡았다.

“제 이름은요...” 수줍은 목소리로 시작한 자기소개는 뒤이어 큰 목소리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변하였다.



“아니마시아가 무슨 프로그램인 줄 알고 왔어요?”

미소가 돋보이는 주장사 런쑈C의 질문에 12명의 아이들 중 두 명이 ‘아니마시아요’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아니마시아는 무엇인가? 아니마시아, 애니메이션의 어원인 라틴어인 아니마(anima)와 아시아(Asia)의 합성어다.

뭐 이렇게 말하니 엄청 거창한 느낌이 들었는데, 박슬기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니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 알 수 있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시아의 집이나 문화 프로그램은 많지만 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전당 개관 전부터 개발해 3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아이들이 직접 출연도 하고, 도구를 조작해서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드는 것이다. 촬영기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오브제애니메이션과 사람이 직접 출연하는 픽실레이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모듈별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3, 4학년 아이들이 해낼 수 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번이 4기인데, 그 전 기수들이 한 애니메이션 영상 결과물을 보자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3학년이 만든 작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창의적인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깨지는 이미지”의 감각 카드를 가지고 깨뜨리는 능력을 연상하여, 아이언맨 같은 영웅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친구도 있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의 감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아니마시아는 모듬을 구성할 때도 색다르다. 컵 옮기기 게임을 통해 같은 색깔의 컵을 가진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모듬을 구성하였다. 몸으로 리듬을 만들고, 인사법도 몸으로 만들어보았다. 강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모듬의 이름과 구호를 만들어 발표해보고 감각카드, 아니마 다이어리를 정리했다. 어떻게 지나간 지 모르게 훌쩍 지나버린 두 시간.

두 시간 전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저리 가고, 서로 손에 손을 잡은 아이들. 매주 일요일 두시가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의 표정에 앞으로의 활동과 만들어낼 애니메이션 작품이 기대된다.

감각을 깨우는 두 시간의 기적, 이것이 아니마시아의 힘이다!



종이 박스로 쌓는 나의 미래성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송은호 모담지기

공간을 만드는 놀이터

비가 온 후에 놀이터에는 항상 아이들로 가득했다. 물기로 축축해진 흙을 치덕치덕 밟아서 미래성을 쌓고, 언덕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터널을 뚫고, 물길을 만들어 운하를 연결하면서 아이들은 저마다 거대한 마을들을 만들었다. 아이는 생각한다.

‘여기에는 누가누가 살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나만의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재미있는 놀이이며 거대한 세계의 창조이다. 놀이터는 나만의 공간이 탄생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그렇기에 나의 어린 시절 ‘공간’이라는 것은 놀이터의 미래성 쌓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흙 대신 스마트폰과 마우스를 만지는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간’이란 무엇일까?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은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물 안의 놀이터'이다. 이번에 찾아간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는 일상의 사물들과 미디어 아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게 공간이란 주제를 생각해보자!'는 모토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박스나 풍선들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아이패드와 드로잉 태그틀로 공간을 꾸미면서 나만의 설치미술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2회차를 맞이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명이 모였을 때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행강사는 12명의 아이들을 3명씩 한 조로 나눈 후에 미션을 줬다. 아이들 뒤에는 골판지 박스와 휴지심, 풍선과 테이프, 발광 다이오드에서부터 곰인형까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로 가득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분주하게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고 나르기 시작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재료를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분주하고 산만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자유롭게 뛰노는 놀이터와 같은 분위기였다. 투닥거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듯 종이박스와 소품들로 자기들만의 공간을 창조해 나갔다.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면서 재료들은 놀이터의 시소가 되기도, 거대한 성이 되기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기도 하였다.



“집에서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박준화 어린이가 종이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말했다. 넓은 마당 대신 좁은 아파트에 살고, 놀이터를 뛰어놀 시간에 학원에 있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이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발휘하고 있었다. 그가 만든 거대한 성은 발광 다이오드가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고 안에는 곰인형 한쌍이 서로 나란히 앉아 구경을 하고 하늘에는 종이로 만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옆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나’고 물어보자 아이는 맞춰보라며 씩스럽게 미소지었다.

다음은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시아 문화원 어린이 사업부 김보영 선생님과과의 인터뷰이다.

Q. 어린이 문화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어린이 문화원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 및 공간과 연계, 어린이를 위한 통합적 문화체험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술창작, 문화콘텐츠 창작, 이야기 창작 등을 주제로 운영되는 정기형 프로그램들과 초등 단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단체 프로그램, 어린이 도서와 연계한 어린이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원래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예술실험실’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이패드와 빔 프로젝터 등 현대기술 장비들을 이용한 체험 활동에 아이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기간의 프로그램 대신 단기간으로, 고학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나이대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새롭게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미디어 실험실 공간으로 놀자!’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첫 시간은 종이박스와 생활 사물들을 이용하여 공간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신 김자이 작가님을 초청해서 홀로그램을 통한 미디어 아트 체험과정을 했었구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미디어 드로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이들이 만든 구조물에 미디어 드로잉을 투사시켜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Q. 일반 미술 시간과는 다르게 빔 프로젝터나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아이들에게 아이패드와 드로잉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니 금방 배우고 적용하더라구요.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이런 전자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에 많이 노출되어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익숙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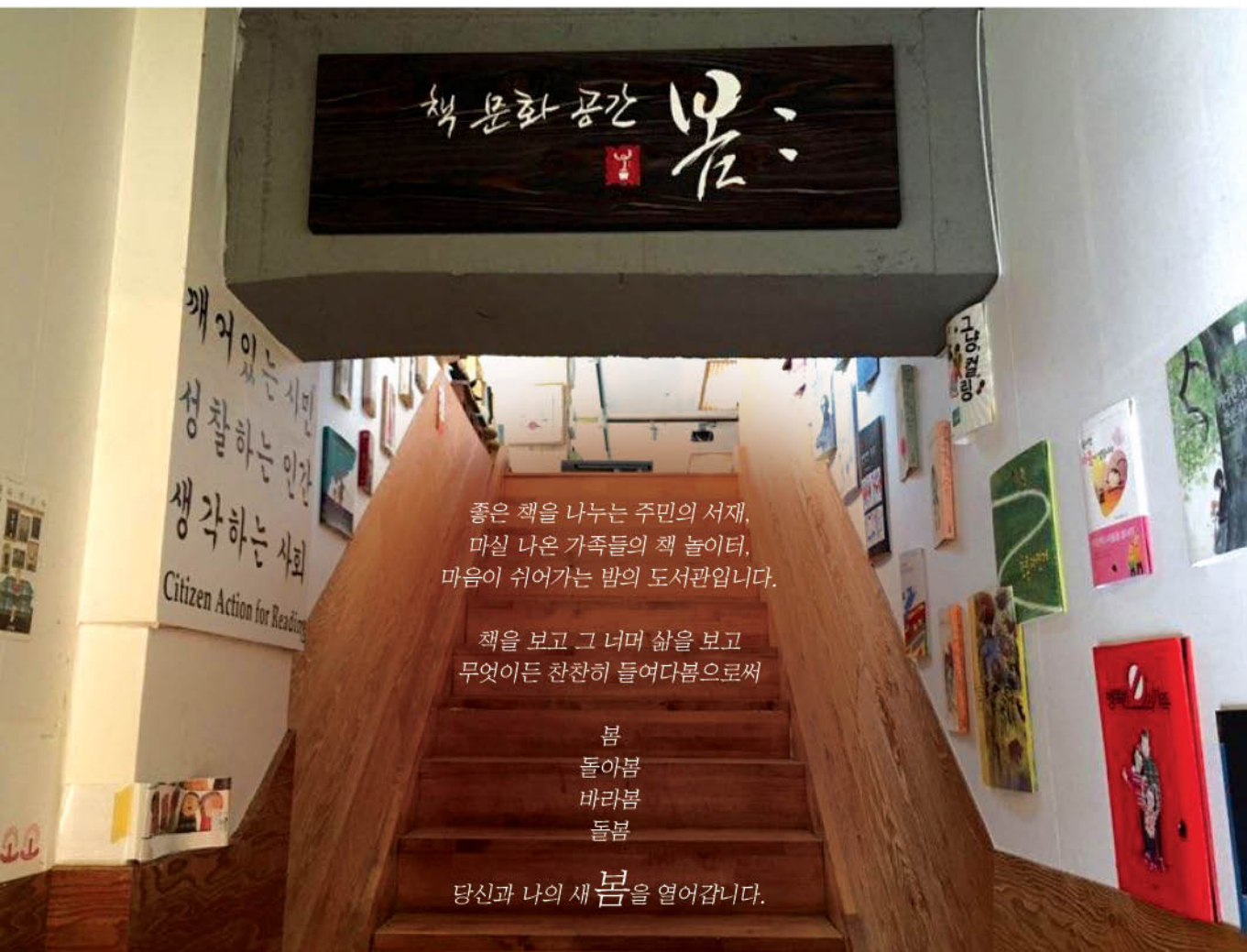
Q. 이번 수업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수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A. 5월에 어린이 문화원에서 아시아 스포츠 놀이 축제 ‘How Fun’이 개최됩니다. 그때는 실내에서가 아닌 야외부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을 보고 그 너머 삶을 보는 곳, ‘책 문화 공간 봄’을 다녀오다

김다래 모담지기



좋은 책을 나누는 주민의 서재,
마실 나온 가족들의 책 놀이터,
마음이 쉬어가는 밤의 도서관입니다.

책을 보고 그 너머 삶을 보고
무엇이든 찬찬히 들여다봄으로써

봄
돌아봄
바라봄
돌봄

당신과 나의 새 봄을 열어갑니다.

봄별이 따뜻하게 몸을 휘감는 금요일 오전, 봄이라는 정겨운 계절을 담은 소박하고 다정한 공간 ‘책 문화 공간 봄: 작은 도서관’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지난 3년의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끌어 온 김영주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수강생들이 만든 책 관련 공예품들

‘책 문화공간 봄’은 센터의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공모에 선발이 되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다.

김영주 관장이 이끌어 가는 단체로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수강생들과 함께 책 잔치를 연구하고 기획해나갔고 마지막 세 번 째는 책 축제를 기획하여 실행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책 잔치를 기획하고 책 잔치 콘텐츠를 연구·개발·실행하였고 넘쳐나는 지역축제 안에서 책 잔치의 특징을 살려 주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책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였다.

책 문화 공간 봄은 무엇보다 목적별, 대상별에 맞는 책 잔치 기획 및 책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였는데 이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Q. 책 문화 공간에게 ‘책’이란?

공기와도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지요.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사실상 공기가 있기에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책 또한 그랬습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책은 늘 그렇습니다. 또 ‘무한함’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책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Q. 그동안의 지원을 통한 책 문화 공간 붐의 자생력과 역량이 강화된 점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점이 있으셨나요?

지난 3년의 과정을 떠올리면 늘 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한 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발전을 도운 원동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 교육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그 3년의 시간에 쏟았던 정성과 노력이 새삼 대견하기도 합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책 잔치를 함께 연구하고 기획해나갔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연구한 책 축제를 기획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3년에 걸친 교육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책과 관련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우리만의 방향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책 문화 공간 붐이 앞으로 이끌어 갈 문화 예술교육은 어떤 방향인가요?

지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어머님 세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진남중학교와 진남초등학교 아이들 즉 자라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

육 대상과 연령층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책을 사랑하고 책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늘 실험정신을 갖고 기획하고 시도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세워지는 시기에 책을 통해 저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책이 줄 수 있는 감동과 행복, 기쁨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 감동과 행복과 기쁨을 꼭 느꼈으면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또한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주 바탕이 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Q. 앞으로 진행 될 교육에 대한 포부나 다짐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또 책 문화만의 특성을 살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향후 책 문화가 지역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심쟁이 아이들과 즐거운 토요일 보내기 프랜대디 스쿨 [Friend+Daddy]

아버지, 가깝지만 멀고,
친근하기에는 무서운 이름.

송은호 모담지기



오늘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고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오신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食口)이지만 정작 자식과 아버지가 함께 놀고 대화를 했던 때가 언제였던지.....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지고,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벌어오는 것이 가

정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믿어온 아버지도 막상 자식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어려워한다. 과연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프랜대디 스쿨은 아이들을 위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핸드폰이나 인터넷게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거나 자극적인 영상에 쉽게 중독되고는 한다. 보드게임은 룰이 쉬우면서도 재미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직접 말판을 움직이고 주사위를 굴리면서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간접적 자극이 아닌 직접적 체험감을 느낄 수 있다.

게임은 ‘알마도라’라는 게임과 ‘초밥왕’이라는 두 가지 게임으로 진행되었는데 게임 스코어를 초콜릿으로 대신하여 진행하는 소소한 재미가 인상적이었다.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초콜릿이 상대팀과 내편을 오고갔고 배가 고픈 아이는 점수로 쓰는 초콜릿을 먹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아버지들도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계시다가 어느새 게임 삼매경에 폭 빠져드셨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훈수를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상대편 초콜릿을 빼앗아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보드게임을 통해 아버지와 아이들은 같은 재미와 기쁨을 공유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신 광산구 평생 교육사 김영란 선생님과과의 인터뷰

'프랜대디스쿨'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 기가 있으신가요?

2년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산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주말 시간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몸을 쓰는 활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드게임, 그림책, 놀이 관련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묶어서 이번 프랜대디스쿨을 기획했습니다.

프랜대디스쿨을 어떻게 운영되나요?

4.1부터 4.22까지 총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구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림책으로 여는 도시 속 가족 공감캠프'라는 이름으로 몸활동과 요리 활동을 접목시킨 놀이를 진행하였구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한판'이란 제목으로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창의력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협동 이미지 점토작업'으로 예술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아버지와 함께 지점토를 만져보면서 작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버려진 물건을 활용하여 놀이감 만들기'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야호센터)에 게시는 이

호동 작가님과 함께 리사이클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한판' 프 로그램을 진행한 '광주창의보드' 모임과의 인터뷰

모임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교육용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임, '광주창의보드'입니다. 광산구청 평생교육원에서 보드게임교육사 과정을 수료 후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총 30명의 멤버가 있으며 활동한 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이나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랜대디스쿨에도 보드게임 프로그램이 운영취지와 잘 맞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드게임'하면은 단순한 게임으로만 생 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을 유희를 위한 단순 놀이로 생각하시지만 최근에는 보드게임이 교육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수학, 연산, 공간, 논술, 심리, 창의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학원가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받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일반인들과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한판’에 참여하셨던 이진서양의 아버지 이정오씨와의 인터뷰

어떻게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광산구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보드게임으로 하는 수업이 있다는 말을 들은 와이프의 신청으로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나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퇴근시간이 늦고 ‘주말에는 쉬어야한다’는 주의여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활동적이고 어려워서 참가한 아버지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들도, 자녀들도 쉽게 참여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딸에게 ‘엄마’라는 삶을 건네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한울〉

최근 들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를 부탁해>와 같이 육아에 소원해진 아빠들을 가정으로 소환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TV 프로그램 덕분인지 많은 아빠들이 데면데면 하던 자녀들과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멀지감치 떨어져 있던 엄마와 우리는 잘 지내는 걸까. 엄마와의 관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에미가 물려주는 삶살이>를 찾아가 보았다.

김한경 모담지기



“엄마하면 다 울어요.”

<에미가 물려주는 삶살이>는 엄마들이 모여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딸들에게 여자이자 엄마로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작 전부터 오늘은 울지 않겠다며 엄마들은 서로 다짐을 하면서도 눈가가 축축했다. ‘엄마’하면 자신이 딸이었을 때, 자신도 엄마가 있었을 때, 엄마와 있었던 일을 자주 회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딸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다가도 자연스레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고.

Q 지금까지 수업을 하시면서 느낀 것 좀 말해주세요.

A 우선 20대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도 안 들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옛날에는 애들이 힘들게 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썼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가게부에 적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책도 만들어서 딸한테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딸한테 말 안했어요. 목요일은 이 수업 때문에 기대 돼요.

감정 인형을 통해 돌아본 지난주

수업을 시작하면서 휴지심과 색종이를 이용해 지난 한 주 자신의 감정을 그려보기로 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과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아들이 아파서, 딸이 상을 받아서, 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서, 집에 돌아온 딸의 표정이 지쳐보여서 엄마도 아프고, 기쁘고, 힘들었다. 엄마들은 사춘기 소녀만큼 예민하고 감수성이 깊었다.



“4살, 5살 아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들의 하루에 따라 제 기분도 정해졌어요. 엄마한테 갈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나는 어렸을 때 어땠어?’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물어보고 왔어요.”

숨겨온 엄마의 꿈



이번 수업 주제는 ‘꿈’이었다. 엄마들은 꿈이 많은 여자였다. 제빵사, 대통령, 문화인류학자, 간호사, 군인 등이 되고 싶었다.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숨겨왔던 엄마의 꿈이 하나 둘씩 터져 나왔다.

“어렸을 때는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생활도 어려웠지만 능력이나 의지도 따라주지 않아서 회사에 바로 취직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키우고, 다 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걸 이제 찾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꿈을 찾는 중이에요.”

“어쩌다 가게 된 해외여행이 좋아서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때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았어요. 크든 작든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엔 하고 있더라고요.”

“산골 시대 생활 15년, 고지식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내 꿈을 너무 잊고 살았어요. 나는 사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에미가 물려주는 삶살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졌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엄마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 걸까. 20대 청년 기획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원래 제가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가교육을 듣고,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기획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획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더라고요. 그때 멘토 선생님께서 본인의 삶에서 먼저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를 생각해보니,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옆에 계신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딸 관계가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삶을 저한테 푸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도 엄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사시나, 자기 좀 챙기면서 살지 생각 들었어요. 엄마가 여자이자,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책으로 묶고, 엄마 주변 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다니시는 공방 친구들과 함께 책을 엮게 됐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Q 단체 이름이 ‘한올’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A ‘한올지다’라는 동사에서 따온 거예요. ‘사람 관계가 한 가닥의 실처럼 치밀하다’라는 의미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Q 한올이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저희도 배워가는 입장으로, 교육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저희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력자 또는 촉진자)로만 역할을 해요. 함부로 참여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드는 문화기획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삶과 맞닿아 있잖아요. 허리띠를 매일 차고 다니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작용하고 있는 허리띠처럼 자연스럽게 삶에서 묻어 나오는 게 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바우시장
협동조합

아빠와 딸이 대화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요리’를 추천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문화놀이터 가을〉

정두리 모담지기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에 있는 협동조합 2층으로 올라가다보면 맛있는 냄새가 풍겨온다. 작은 공간 속에서 아기자기한 소품을 가지고 우왕좌왕 뒤죽박죽 요리교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가깝지만 먼 사이인 ‘아빠와 딸’이 서로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추억을 쌓고 훗날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친근함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엄마들의 만족감이 크다.

문화놀이터 가을 대표와의 인터뷰

아빠와 딸의 뒤죽박죽 요리교실이란 어떤 것 인가요? 작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서 시범운영하게 되었는데 초안 계획은 청년층 자녀로 했었는데 청년층 자체가 가치관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서 대화의 참여 자체가 어렵더라구요. 저희는 대화의 기회를 건네준다는

건데요. 사춘기나 어렸을 때부터 가족문화는 형성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가족모델이 될 수 있고 서먹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년기에서 사춘기까지는 힘들어요. 가족문화가 어느정도 잡혀버린 상태라서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은 강제로 데리고 와

서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사이가 좋을 때 돈독하게 만들어가보자 해서 대상층을 좀 낮게 잡았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아빠와 딸인데, 기러기 가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대상층을 기러기 가족으로 바꿨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기러기 가족들인가요? 네. 기러기 가족이 대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이 저는 일주일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사업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기러기 가족 자체가 2주, 3주만에 한번 오거나 한 달에 한번 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막상 자주오시는 세종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도 해서 그런 가족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년에 하게된다면 2~3주 단위로 오시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싶네요. 약간 팀이 길터라구요.

매주 오시던 분들이 오시는 형태인가요?

기러기 가족 6쌍을 모집을 했구요. 6쌍이 1강부터 10강까지 꼭 하는겁니다. 요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리를 매개체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서 회차마다 주제를 던져줍니다. 저번 회차에서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던져주고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서 요리를 만들도록 하죠. 아버님들 스타일이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해도 대화의 스킬이 부족해서 유들 유들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끓기죠. 그래서 작은 소품, 이벤트적인 소품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살리고자 사비를 들여서 많이 썼습니다. 촛불 같은 것도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소감도 듣나요? 소감은 제일 마지막 회차 때 듣거든요. 작년 시범운영 할 때는 대부분이 좋다고 그러시죠. 특히 이건 아빠들 만족도보다 엄마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든 아빠와 딸이 가서 저녁도 해결하고 오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니까요.

앞으로도 꼭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는 힘들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해야 하는 면이 고민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있어요. 기획회의부터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네요.





아빠와 딸은 오늘의 요리 '토마토 스파게티'의 레시피를 찾는 것부터가 요리의 시작이다. 말 그대로 뒤죽박죽인 이유가 바로 강의가 없이 자기들만의 요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맛이야 아무렴 어떠냐?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더 하지 않겠는가?

아빠들은 서울, 세종시 등에서 당일 아침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려온다. 그리고 도착해서 딸과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피곤하겠지만 딸들의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진을 찍어서 간직해두기도 한다. 토마토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미트볼,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소스까지 만들어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다.

사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다지기를 하고 토마토에 칼집을 내고 데치고 으깨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뚝뚝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부녀도 있고 다정다감하게 매 과정마다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는 가족도 있다. 그렇지만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무뚝뚝한 부녀가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함께 있기만 해도 즐거운 가족이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과 시간을 쏟아내야 관계가 돈독해지는 법이다. 뒤죽박죽 요리교실에서는 아빠와 딸이 서로에게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맛있는 한 끼가 아닌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는 시간이다.

내면의 억압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춤의 힘, ‘콜롬비아 - 몸의 학교 워크숍’을 다녀오다

김다래 모담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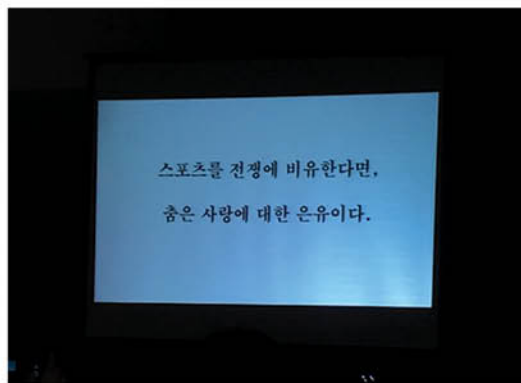
예술이 가진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가치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무궁무진하다는 답을 내릴 것이다. 예술 활동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예술은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많은 예술 영역들 중에서 ‘춤’이 가지는 힘과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즐거워 보이는 것은 물론 마치 봄처럼 환한 생기를 띄고 있다.

여기 춤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 학교가 있다. 바로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다. 몸의 학교는 예술 대안학교로서 수없이 계속된 내전으로 고통과 소외를 겪고 있는 콜롬비아 청소년에게 ‘춤’이라는 교육 방식을 채택한 학교이다. ‘콜롬비아-몸의 학교’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후 20년 동안 8000여 명의 소외 계층 청소년들이 몸의 학교를 거쳐 갔고 그 중에서 약 500명은 전문 무용수로 성장했다.

지난 5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몸의 학교’ 설립 자이자 교장인 알바로 레스트레포(Alvaro Restrepo)와 소속 무용수인 리카르도 마티네(Ricardo Martinez)를 중심으로 워크숍이 열렸다. 직접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알바로 교장의 진정성 있는 예술교육철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춤은 사랑에 대한 은유’



스포츠를 전쟁에 비유한다면, 춤은 사랑에 대한 은유라는 말로 워크숍은 시작되었다. 이는 즉 스포츠는 결과 성취에 따른 보상을 주나 춤은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춤이 가지는 큰 가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울고 있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춤은 이러한 아이를 꺼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이다.

즉 춤을 통해 내면의 억압된 상처와 분노가 치유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콜롬비아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배경에는 춤의 공헌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바로 교장이 추구하는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자’

“제 교육 철학은 배움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 된 학습자는 알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진실에 좀 더 가까워졌는지 인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스승이 인도하는 진리를 얻고자 그 이전의 자신을 기꺼이 불태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교사는 학생 안의 불꽃을 인지하고 자극하고 화답하여 강력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 차원 좀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바로 잘못된 체계, 빠른 단념과 포기, 획일성, 평범한, 좌절에 저항하는 교육입니다.”



알바로 교장의 예술교육철학은 그가 얼마나 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변질되어가는 시점에서 진정으로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교육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몸의 학교’는 춤을 가르치기 전에 몸에 대한 윤리부터 가르친다. 몸은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생명을 잉태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몸은 우리 영혼이 머무는 집이기도 하다. 몸을 돌보기 위한 성교육, 약물중독 예방, 가정폭력, 몸의 권리와 정체성, 영양, 해부학 등을 가르친다. 이러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몸이 세상과 통신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을 띄고 있다. 학생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표현을 중시하겠다는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교육이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교육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스승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남에 따라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알바로 교장의 강의를 끝난 후에는 워크숍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도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춤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고, 현재 자신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점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경자씨와 재봉틀, 그 네 번째 이야기

〈경자씨와재봉틀 IV-청춘런웨이〉

김한경 모담지기



경자씨가 도대체 누구예요?

<경자씨와 재봉틀>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자체기획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2014년 세상 밖으로 첫 걸음을 뗀 경자씨는 심리극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들여다보고, 연극으로 한 때 꿈을 이야기했다. 2016년의 경자씨는 꿈을 찾아 여행을 나섰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자씨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했다. 2017년 경자씨는 ‘재봉틀’에 집중했다. 오래전 자신의 열정이 담긴 낡은 재봉틀을 꺼내 미싱을 시작했다. 드르륵 미싱 소리와 함께 과거의 추억들과 현재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생각하는 경자씨. 4번째 <경자씨와 재봉틀>의 기획을 맡은 문화기획사 ‘라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이번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을 맡게 되신 소감이 있으시다면?

A 처음 <경자씨와 재봉틀>이 기획된 게 교육지원센터 한 직원분이 자신은 일하는데, 집에서 애기만 보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되, 다양한 관점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경자씨와 재봉틀>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져 간다는 게 새롭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서 유심히 지켜본 사업 중 하나였는데, 같이 하게 돼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진행되는 <경자씨와 재봉틀>은 어떤 수업인가요?

A <경자씨와 재봉틀>은 5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삶을 디자인 하고 살아온 50-60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요. 자신의 일상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삶을 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죠. 저희는 그걸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쉽고 재밌고, 수다 떨듯이 하고 싶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엄마세대에도 가장 일상적인 고민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또는 특별한 날에 뭐 입을지 고민하잖아요. 이번 <경자씨와 재봉틀>은 그런 일상적인 고민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들이 디자이너가 돼서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는 패션쇼도 하면서 다각도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는 수업이에요. ‘맞아.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지.’ 부터 시작해서 나의 취향과 기호를 알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Q 그동안 어떤 수업들이 진행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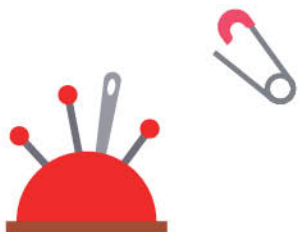
A 어머니들 각자 본인의 청춘 시절 사진을 가져와서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본인은 청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때가 좋았지.’ 그러세요. 저희는 참여자 어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할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야만 지금도 청춘이고, 내일보다 젊고, 충분히 아름답다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매개 없이 “어머님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가장 젊었을 때 사진을 나눠보면서 과거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Q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머니들께 기대하는 효과가 있으신가요?

A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한 옷을 입고, 평소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곳, 혹은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자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살아오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경자씨!
 지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재단했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경자씨와 재봉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이제 재봉 수업은 한 번 남았고, 화보 촬영이 남아 있어요. 원피스를 만들어 입고,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을 화보집으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화보집에는 어머님들이 만든 옷과 이야기를 소개할 거예요. 7월 14일 금요일 저녁, 문화재단 338갤러리에서 원피스와 화보집을 소개하는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수업은 오전인데, 어머님 가족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저녁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Q 문화기획사 <라우>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듣고 싶어요.

A 저희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생들이 모여 만든 회사예요. 저는 3번째 멤버로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기관에 있었을 때,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란 건 '분명한 목적성과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우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상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예요. <경자씨와 재봉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들의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희는 간헐 일상에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게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경자씨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A 한 어머님이 자기 나이가 올해 50살이 넘었는데,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이제 30살이 됐는데, 다 컸고, 인생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을 더 가야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면서 어머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섰으니까 지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재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나’를 만나서 내뿜는 소리의 향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평화예술교육센터〉

정두리 모담지기



“슈욱 - 슈욱 -”, “ 짹짹”, “뚝, 뚝, 뚝”.

소리가 전달해주는 힘은 대단하다. 소리만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자연의 소리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평화예술교육센터의 ‘사운드 스케이프’ 프로그램 현장에 다녀왔다.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 :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을 더한 말로, 소리로 감지하는 풍경. 소리를 단순한 물리가 아니라 문화 가치를 담은 것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소리에는 계절 변화가 담겨 있기도 하고, 지역이나 개인 삶과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소리가 갖는 가치를 반영하여 공간이나 풍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사운드스케이프이라 한다.

2008년 대한민국을 울렸던 영화 ‘워낭소리’를 기억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의 코에 걸어서 소가 어디에 있던지 ‘워낭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한 단순한 코걸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의미로 소와 주인할아버지의 관계형성을 나타내서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한 영화의 내용처럼 소리로 느껴지는 의미를 느끼고 분석하고 재해석해서 나의 개성을 가미해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생소하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평화예술교육센터는 어느 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모든 소리들을 채집하고 이 채집과정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을 공유하며 가장 크게 느껴지는 소리, 가장 인상 깊었던 소리, 가장 기분 좋게 느껴졌던 소리들을 찾으면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색채, 소리파일 등으로 새롭게 창조해낸다.

20~30대 참가자들이 모여서 24주간 주 1회 프로그램에 참여해본다. 청년들의 일상 속에 녹아나게 하는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큰 목표는 이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사운드의 세계. 나는 이 경험을 ‘내 안의 나를 만나다.’라고 표현해보고 싶다.

한 회차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첫 스트레칭부터 독특하다. 정해진 스트레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한명씩 돌아가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을 다

같이 해보는 방식이다. 이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소리를 통해 느껴지는 나의 감정, 직장상사에게 이유 없이 혼난 상황이나 로또 당첨된 기쁨, 화가 무지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서 깊이 내 생각에 빠져들어 파트너와 나눠보면서 나를 뛰어넘어 너, 우리를 생각해본다.

앞아서 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말하는 거울놀이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보고 거울이 되어보면서 내가 표현하는 몸의 흐름이나 행동표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정확한 의미전달을 해보는 공감의 경험을 했다면 이 짜릿함에 살짝 미소 띠는 것이다. 투명 공놀이를 통해 더욱 심화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투명공을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공을 가지고 노는 데 다른 사람들이 공의 소리를 내주는 형태이다.



그리고 숲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숲의 소리를 입을 통해서 6~7명의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오롯이 본인이 생각하는 숲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소리를 찾아서 실제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풀을 가르는 소리 등 제한은 없다.

명상하듯이 눈을 감고 내가 편안한 숲을 떠올려보자. 풀이 우거진 곳에 발을 디디니 길쭉길쭉한 나무들이 곳곳에 푸릇푸릇하게 피어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나무들 사이를 오고가면서 물안개가 질지만 아직 해는 짙은 이곳에서 이름 모를 풀을 만져봤다. 풀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풀들이 나를 스쳐가면서 소리를 낸다. 물안개에 이슬이 맺혀 고여 있는 물가에 푹푹 떨어진다. 그 물가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보니 절벽 끝에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모습도 장관이다. 가만히 구경하다보면 새가 한 마리씩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 내가 이방인이라서 경계하는 소리일까? 눈을 떠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눈을 감으니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를 가르고 풀을 가르며 내 이마의 땀을 식혀주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숲을 걷고 있었는데 종이 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서로가 내는 소리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숲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아마존을 생각하면서 원숭이 소리를 못 내어 아쉬워하고 빗방울 하나에도 서로 다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밤에 울리는 소리이고 큰 바람소리 등 대체적으로 고요해서 큰소리를 못 냈다고 했다. 또한 나는 벌레소리를 생각했는데 입으로 소리를 못 내어 아쉽기도 했다.



이런 소리에 빠져있을 때, 입으로 내는 것 말고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입체화해보기도 했다. 각자가 원하는 색과 공간, 형태로 음악에 맞춰 색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완성작은 마지막회차 11월경에 전시도 될 예정이다.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생소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음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뜨고 있고 광주권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막상 한 회차만 경험 해봐도 편안하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 다음 회차가 기대될 정도였다.



〈양림 숲, 예술과 만나다〉 결과발표회 현장스케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마을숲연구소〉

강은숙 모담지기

‘숲’이란 수풀,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꼭 들어찬 것의 줄임말이다. 이삼십 년 전에는 수풀 사이에 종이를 숨겨 보물찾기를 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숨바꼭질이 주 놀이거리였다. 하지만 놀이거리가 다양한 요즘 아이들에게 숲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궁금했다.

7월 8일 토요일, 궁금증을 해소해줄 마을 숲 연구소에서 진행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양림 숲, 예술과 만나다> 프로그램의 결과발표회 현장에 다녀왔다.

사직타워 전시실에 들어서자 숲을 타워 안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시실은 가족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10주간 자신이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있는 것을 본 아이들의 얼굴에는 푸른 나뭇잎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세 시간씩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다양한 작품으로 변신해있었다. 작품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림’이었다. 흙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 했지 종이에 흙 그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실로 놀라웠다. ‘소중하게 만져 봄’이라는 교육 제목으로 내용은 아이들이 숲을 탐방하고 여러 가지 흙들을 채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흙가루로 땅속에 누가 사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린 수업의 결과물이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멋진 작품이었다.



흙으로 만든 그림



나뭇잎 탁본으로 만든 에코백

흙으로 만든 그림에 빠져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에코백이 전시되어 있었다. ‘생각 담아 만 들어 봄’ 시간은 양림숲의 대표 나무인 ‘호랑가시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뭇잎 탁본을 만들어 알록달록 예쁜 에코백을 만들었다고 한다. Eco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나뭇잎 에코백이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띈 ‘숲길을 열음’ 시간에 만들어진 손수건 작품이었다. 숲이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란 꽃잎은 노란색이 될까?’ 내용으로 자연물로 색을 만드는 교육이 진행되었고, 잎사귀나 꽃잎, 흙을 뺀아서 물감을 만들고 손수건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얼핏 봤을 때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꽃잎과 나뭇잎의 물들이기로 그림을 그린 것이었다. 어

찌 보면 천연염색과 같은 과정을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은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연의 놀라움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다.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작품에 흠뻑 취해있는 동안 마을 숲 선생님들께서 결과발표회를 준비했다. 10주 동안 참여했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프로그램 소감을 직접 만들었던 ‘느낌 노트’에 펜을 꼭꼭 눌러 쓰기 시작했다. 결과발표회 영상을 틀어주었는데, 아이와 부모



꽃과 나뭇잎으로 물들인 손수건

님이 같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얼굴에 미소까지 만들어 냈다. 10주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끝나고 참여했던 가족들의 소감 발표회가 이어졌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소감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색 있게 아이와 엄마 모두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여자아이, “장난감을 사서 놀곤 했는데, 자연에 놀이 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라는 어머니, “11회차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흘러갔고, 수업 날이 기다려져 행복했어요.”라고 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켈리티 있는 교육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다과 시간과 이벤트 시간으로 결과발표회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예술이 펼쳐지는 상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을 숲 연구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숲’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태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반기 교육은 끝이 났지만 하반기 교육은 8월 26일부터 새로 숲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 아닌 생태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숲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통신원-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 속으로 GO!

계절은 무르익고 한해의 반이 흐른 여름, 지난 7월 8일 제 8기 통신원과 기획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여수와 순천에서 진행되었다. 비록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외에도 전남권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다래 모담지기





‘전남 지역 유일한 문화파출소 - 여수 문화파출소’

광주에서 한 시간 반의 이동을 거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여수의 문화파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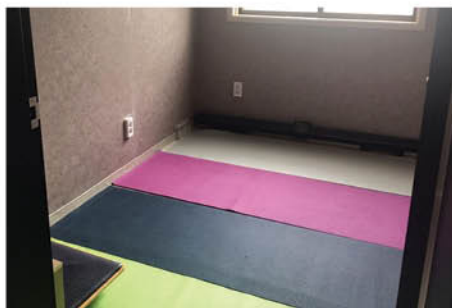
여수의 문화파출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만들어진 공간이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9개의 치안센터를 활용한 점이 특색이다. 그중에서도 여수의 문화파출소 전남 지역 유일한 문화 파출소로 일주일에 평균 100여 명의 지역민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 지역 유일한 문화파출소로서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여수 문화파출소에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을까?

문화파출소에서는 총 18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감성소품 DIY&리폼(공예), 내 인생의 십팔번(성악), 도전 텐

스킹(무용), 여수푸른빛 우쿨렐레(악기), 우리 동네 어린이 공작단(통합), 연필초상화(미술), 나는 좋은 엄마일까요(심리치유) 등. 참여 주민은 총 93명이며 어린이부터 60대까지 참가자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내 인생의 십팔번’과 ‘여수푸른빛 우쿨렐레’, ‘통기타와 함께하는 낭만여행’ 프로그램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40~60대 6명이 모여 성악을 배우고 있으며, 지난 5월 26일 주민자치프로그램 ‘음악이 흐르는 파출소’ 음악회에 출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 줌의 모래로 예술을 빛다 - 순천 미듬팜’

문화파출소 탐방 후 다시 한 시간의 이동을 거쳐 통신헌원과 기획자들이 찾아간 두 번째 공간은 바로 순천의 미듬팜. 모래를 이용한 아트체험을 제공하는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샌드아트가 생소한 이들을 위해 샌드 아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샌드 아트는 하얀 유리판 위에 빛과 모래로 그린 그림으로 창작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빛과 모래로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이다. 오로지 손과 모래라는 두 도구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샌드아트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빛과 모래만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문화예술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교재나 교육의 방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예술 분야이므로 그만큼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순천의 예술혼을 담는 곳, 문화의 거리 - 창작 예술촌’

유명한 파주의 헤이리 예술 마을 외에도 여기 전라남도 순천에도 순천만의 예술혼이 담긴 창작예술촌이 있다. 순천의 문화거리는 순천시가 예술문화 활성화와 낙후된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동, 행동, 금곡동 일원을 바탕으로 조성한 문화거리이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무대가 되어준은 물론 지역 내 예술 진흥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다.

사진작가 배병우, 한복연구가 김혜순, 서양화가 조강훈 등 다양한 예술가등이 입주 해있다. 통신원과 기획자 모두도 세 공간을 탐방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인 김혜순 한복명인의 공간 ‘예정’을 집중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930년대 적산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창작 스튜디오 예정은 옛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의 공간만을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다. 공방 안에는 김혜순 한복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고운 한복과 소품, 공예품 등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작고 협소한 공간이지만 한복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찾는 곳이라고.



2호 창작 예술촌 김혜순 한복명인의 예정



단순히 빛 좋은 개살구식의 보여 주기 식 공간이 아니라 공간 곳곳에 방문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공들인 흔적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예정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복에 대한 김혜순 장인의 애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통신원으로 활동을 한 지도 벌써 다섯 달이 흘렀다. 그간의 취재 활동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워크숍은 광주를 벗어나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이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시간이었다. 여수의 문화파출소, 순천의 미듬팜, 순천의 창작예술촌까지. 성격도 특성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지역 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워크숍이라는 명목을 떠나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활기찬 움직임을 띄고 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지닌 힘과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여수의 문화파출소를 말하고 싶다. 파출소가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리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었을까? 문화예술은 세상의 밝은 변화에 앞장선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여수의 문화파출소는 기존의 파출소라는 공간이 갖는 경직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했다. 광주 지역에서도 여수의 문화파출소와 같은 파출소가 곳곳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물, 나무 아지트 만들기

〈2017 어린이놀이도시Ⅲ - 어린이목수축제〉

강은숙 모담지기





광주시립어린이미술관 잔디밭에서 푹푹뚫, 씹 씹쓹쓹, 쿵쿵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어린이 목수 축제’라고 페인트로 직접 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어린이가 목수라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플래카드 뒤로 걸어가 보았다. 톱을 가지고 쓹쓹쓹 나무를 자르고, 망치로 쿵쿵 소리를 내며 푹푹뚫 집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자 ‘우와’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던 잔디밭을 메운 각양각색의 나무 집을 짓느라 분주한 어린이 목수들의 실력에 감탄했다.

<어린이 목수축제>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망치와 톱 하나로 어린이들만의 아지트 마을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0명이 팀으로 이루어져 총 8팀으로 8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축제는 벌써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도시는 1회는 종이집을 2회는 시청에 놀이터를 3회는 나무 집으로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기획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부모님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번에도 모집 삼 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어린이 목수축제는 얼굴도 몰랐던 80명의 아이들이 8명의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어떤 아지트를 만들지 어린이들과 계획을 짜고 상상하는 시간과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만드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다니는 학교가 달라 처음 본 친구들과 어색함도 잠시 각자 팀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나무 아지트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였다.

노작활동을 통해 나무 아지트를 만드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처음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망치질과 톱질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서투른 손으로 나무 아지트를 만드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들었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어린이들이 공구 사용법을 배우고, 망치질과 톱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아지트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실수로 망치질을 하다 손이 찢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구를 사용하는 요령도 생겼다. 축제 둘째 날은 나무 위에 색색의 페인트로 꾸며지고 있었다. 디자이너라 볼릴 만큼 열정적인 어린이 목수들이 포착되었다. 여덟 개 나무 아지트의 특성에 따른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어지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기면서 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놀이 도시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나무 아지트가 완성되고 나서 신나는 장터축제가 열렸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건축물인 아지트에 가져온 물건을 내놓았다. 이 장터의 특징은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없다. 돈이 아니면 무엇으로 물건을 살 것인가? 바로 물물교환이다. 자신이 필요 없는 물건과 상대가 갖고 있는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며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갔다. 다른 조 어린이들의 아지트를 구경하고 물건도 교환하고 우정까지 돈독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다.

나무집 장터가 끝나고 <어린이 목수축제 개장식>이 시작되었다. 유명한 예술가들의 손

에서 탄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나무 아지트의 첫 집들이가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부모님과 친구들, 방문객들에게 나무 집 작품을 소개했다.

“친환경을 생각한 집이에요!”

“그늘이 있는 시원한 집입니다.”

“일본 오사가성을 따라서 만들었지만 성치고는 허술하죠?”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온 개성 있는 나무 집 소개에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잘 해냈다는 대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부모님들의 박수에 어린이들의 얼굴은 자신감과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아지트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일이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어린이 놀이 도시, 어린이 목수축제>를 기획한 정민룡 관장님(북구문화의집)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협동을 배울 수 있었고, 만드는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땀방울로 만든 나무 아지트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뜻깊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줄 내년 프로그램도 기대해본다.





나의 뽀짝이들과 아우라지를 나눕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극단 토박이〉

정두리 모담지기

극단 토박이는 83년에 창단했다. 그 뒤로 88년 즈음에 본격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놀이, 교육 놀이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대적인 상황과 처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놀이 중심으로 협력, 소통하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하면서 어린이 연극학교는 24년째 여름방학마다 자리를 잡았다. 이후 초등학생 대상을 넘어서 새터민,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취지를 살려서 ‘아우라지’를 3년 전에 시작했다. ‘아우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아우른다는 뜻을 갖는다.

‘아우라지’ 이전에 사춘기에 접어드는 사각지대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유쾌, 상쾌, 통쾌 뼈따이들 프로그램을 4~5년 정도 운영했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곳을 찾아가보려고 하는 데 그래서 찾은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다. 연극은 공동체 작업이다. 함께 소통하면서 극을 이끌어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연극 속에서 찾았고, 너무 지루해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보면서 문학, 작곡, 만화와 같은 것들을 연극과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은 만화와 연극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아우라지’로 방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기억 중에 하나는 바로 동아리에 소속되어서 3년 동안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했던 기억이다. 그 과정에서 선배, 후배들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했던 시간들, 무대에서 떨리지만 다른 친구들 앞에서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훗날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자신감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중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연극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검은 봉지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표현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몸풀기로 시작한 검은 봉지 속 물건, 그리고 동화 속 인물들을 퀴즈로 내면서 맞추는 재밌는 시간이 되었다.

봉지에서 꺼내어서 베어 문 것이 사과인지 햄버거인지 아주 세심한 부분을 표현해서 누군가 맞추는 희열을 느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몸풀기. 한 편의 이야기에는 주인공과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을 돕는 사람은 조력자가, 주인공을 돕지 않는 사람을 적이라고 본다. 이 틀로 갈등을 만들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야기에 살이 붙고 무수한 요소들이 탄생한다.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 그림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착하고, 교양있고, 차분하고, 성직자 같은 일을 할 이미지인 반면 뚱뚱한 모나리자 그림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밝고, 유쾌하고, 요리를 잘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외모를 통해서도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다.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가지 큰 이야기를 발표한다. 돈으로 얽힌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발전된 모둠, 부모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모둠 등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의자 하나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해할만한 상황을 제시하는 역할극을 해본다. 의자에 앉으려는 사람과 일어나게 하려는 사람의 대치가 치열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후 벌어진 상황. 나가지 않으려는 손님과 청소를 해야 하니 그만 나가주라는 종업원의 갈등. 응급실에서 엄마가 실려 온 보호자와 응급실 간호사. 카페에서 마추친 경찰과 용의자 등등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많다. 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배웠으니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들이 숨 쉬는 장면을 만들어보자. 모둠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포즈로 있는 그림을 연출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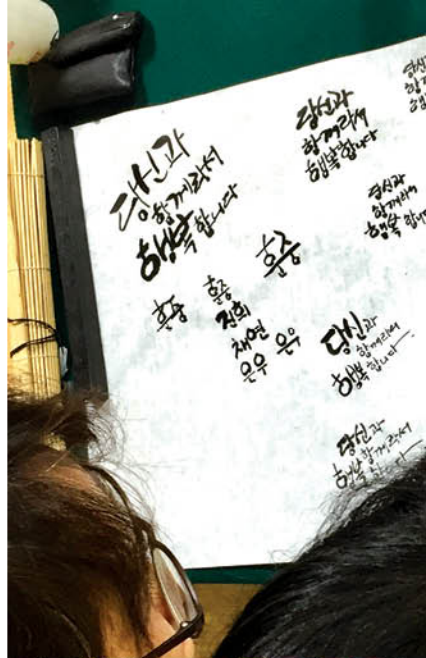
아우라지 수업 속에는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다. 오늘은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주변 인물들,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주인공이 아니고 중학생이라고 주인공인 세상은 없다. 이야기 세상 속에는 누구나 주인공이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중년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다

〈인큐베이팅-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김한경 모담지기

지난 4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신규 운영단체를 발굴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을 함께 나누고, 직접 실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참여단체 중 하나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기획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5번째 만남에 접어들고 있었다. 프로그래머 양중희씨는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모집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알게 되었어요. 꼭 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원을 했죠.”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는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라는 제목으로, 캘리그래피를 통해 중년의 주부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관계적 위기를 해결해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중희씨는 아.장.아.장 교육과정 중 멘토 선생님이 ‘대상설정’이 명확해야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주부’와 같이 모호하게 대상을 설정하다가 고민 끝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 하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대상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6명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이고 있다.

16명의 엄마들은 이곳에 모여 나만의 개성 있는 글자 찾기 과정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도 아니고, 인생의 절반쯤 온 중년에 웬 자아 찾기냐고 묻겠지만, 사실 중년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다.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라고도 하듯이, 중년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기회, 목표 등의 상실과 생물학적 쇠퇴를 겪게 된다. 이러한 내·외부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재평가하고 재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만 않을 것이다. 변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감정들이 소모된다.

이러한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 프로그램은 기획되었다. 어쩌면 제목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토요일 오전에 모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학생 때처럼 책상에 앉아 종이를 펴고, 먹물을 묻혀 글씨를 연습한다. 써보고 싶었던 문구를 밤새 찾아봤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글씨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은 문구에서도 각자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예술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듯이, 글씨도 각각 다르다. 또 어떤 분은 글씨 연습을 하다가 글씨는 쓸 때마다 다르다며, 신기하다고 했다. 한 사람이 쓴 글씨가 자세히 보면 쓴 것마다 다르듯이, 사실 우리의 내면을 집중하고 관찰하다보면 매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다. 그러기에 20대의 나와 40대의 내가 다른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우리는

“이미 그대로 괜찮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다.
그러기에 20대의 나와 40대의 내가 다른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대로 괜찮다. 마지막.”

프로그래머 양중희씨를 제외한 예술강사 두 선생님들 모두 다른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캘리그래피만이 갖는 장점은 어디에나 접목할 수 있는 무궁무진성이라고 전했다. 캘리그래피는 액자컵, 도장과 같은 작품을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으며, 생활의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생활에 글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글씨가 들어가는 곳 어디라면 캘리그래피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캘리그래피의 특성상 꾸준히 바뀌가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볼 수 있다. 또 가장 큰 매력은 ‘비용’이다. 초기 재료만 구입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어 큰 돈 들이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없는 주부도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 적은 비용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주부들에게 캘리그래피 문화를 접하게 하고, 꾸준한 취미생활과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은 자연스럽게 중년의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다.



Q. 이번 처음으로 캘리그래피를 접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이란 어떤 건가요?

제가 캘리그래피 수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과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결과물을 중시하고, 과정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재료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은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고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한테는 이러한 재능이 있으니깐 전달하고, 이게 좋으니깐 같이 누리고, 또 다른 좋은 재능이 있으신 분한테 저도 전달을 받을 수 있고요. 각자 갖은 재능이 다 다르니까요. 여기 예술강사 선생님도 2분 더 계시는데, 저희는 학생-예술강사 간 구분이 뚜렷하게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작업하고 그래요.

Q. 앞으로 남은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총 8차시 수업인데, 3번 남았어요. 단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수업에는 장문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글씨체도

찾아가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 완성된 글씨가 아니라 또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수업이 끝나도 마음이 맞으신 분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하면 제가 자리라도 제공해드릴까 해요. 이렇게 흠어져 버리기 너무 아쉬운 인연이에요. 저는 앞으로 캘리그래피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를 다녀와서 최근에 봤던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2015)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재봉사 ‘이치에’는 할머니의 가업을 물려받아 양장점을 운영한다. 마을 사람은 각자의 사연이 담긴 옷을 갖고 가서 그녀에게 수선을 부탁한다. 이치에는 각자의 개성을 맞게 옷을 수선해준다. 이치에는 자신의 양장점 손님들을 위해 1년마다 파티를 연다. 오직 중년들만 파티에 올 수 있으며, 모두 이치에가 수선해 준 옷을 입고 파티에 온다. 그날만큼 그들은 볼품없는 늙은이, 자식을 키우느라 삶에 찌든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근사한 멋쟁이가 된다.

문화예술교육은 주인공 ‘이치에’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각자의 개성을 발견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항상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치에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년에 한 번 파티를 열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넌 내 개 반했어, 세이브 더 펫

〈인큐베이팅-더블루이어즈〉

강은숙 모담지기





“ 개는 주인을 고를 수 없다. 어떤 삶을 보낼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지로 결정된다.
인간의 책임은 무겁다. ”

영화 ‘개에게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의 내레이션을 듣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 있어 반려견은 단순히 동물의 존재를 넘어 가족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넌 내 개 반했어- 세이프 더 펫’ 프로그램은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교육 주제로 꾸며진다. 8주동안 4명의 반려견과 주인, 그리고 예비 견주 2명이 참여하여 독서부터 음악 감상, 요가와 명상, 물감놀이, 간식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기견 그림책을 완성해보는 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토요일 오후, ‘더 펫 하우스’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보는 집의 문을 두드렸다. ‘더 펫 하우스’에는 주인의 품에 안긴 반려견부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반려묘까지 활기참으로 가득했다. 바닥에 요가 매트가 깔려있었는데, ‘넌 내 개 반했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와 명상 시간인 도가 프로그램 준비가 한창이었다.

강아지가 요가, 도가



요가(yoga)와 강아지(dog)의 합성어인 ‘도가(doga)’는 반려견과 단순한 교감을 넘어 반려견과 함께 요가다. 반려견 마사지를 통한 신체 구조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를 교감하기 적합한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 펫 하우스’ 안의 반려견들과 주인들은 ‘도가’를 하기 위해 요가 매트 위에 앉았다. 주인과 반려견들은 서로 편안하게 바라보고 몸을 이완시켰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주인은 반려견의 손을 잡고 교감을 시작하였다.

“좋지?”



도가 중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을 해보았다. 무릎을 꿇고 고관절을 풀어주는 순간 주인은 몸이 이완되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리고 반려견의 몸을 쓰다듬어주고 눈 마주침을 하며 “좋지?”라고 말을 건네라는 강사님의 지도에 쑥스럽게 말을 하는 주인들, 반려견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챈 듯 자신도 엎드려 주인을 따라 한다. 신기해 보이는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은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진정 강아지와 주인이 서로를 향해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다.

사랑을 주는 비송 프리제



요가의 또 다른 참여자인 쌍둥이 같은 두 마리의 비송 프리제는 주인의 품에 안겨있다. 옆구리를 눌러주는 동작을 따라 하는 주인의 품에 안겨 주인의 편안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두 비송 프리제는 부부인데, 주인에게 받은 사랑과 요가를 하며 얻은 안정감 때문인지 수업이 끝나고 애교를 보여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랑받은 강아지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다.

다 같이 팔을 들고 척추를 느끼는 동작에서 척추를 이완시켜주었다. 반려견들은 주인이 요가 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주듯 편한 자세로 무릎 위나 주인의 옆에 앉아있었다.

다시 반려견을 무릎 위에 앉히고 함께 교감하는 동작을 했다. 주인이 무릎 쪽으로 가슴을 밀착하는 동작을 통해 주인의 심장 떨림과 편안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 받는 반려견들은 차분해지고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요가의 동작은 반려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함께 동작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성격도 차분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버리지 마세요, 생명입니다.

요가 마무리 수업을 한 이후 유기견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폐렴에 걸린 강아지의 혀에 대바늘을 꽂아 버린 주인, 보신탕집에서 구조된 강아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를 길거리에 버린 주인 등 여러 사연으로 모인 유기견들이 지내는 곳이기도 한 '더 펫 하우스'.

'넌 내 개 반했어'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유기견 그림책은 하나의 스토리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아지들과 유기견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그림책으로 탄생될 예정이다.

매회 차마다 그림책 전문 강사가 강아지들의 특색을 잡아내어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8주의 과정이 끝나는 11월에 그림책 전시회와 프리마켓이 열릴 예정이다.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매년 10만 마리라고 한다. 더 이상 상처받는 강아지가 없길 책임 있는 인간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꿈꾸닭 ‘역사를 품은 예술’〉이 들려주는 소중한 우리 문화의 가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조선대학교 미술관〉

김다래 모담지기



조선대학교 미술관의 매주 토요일은 분주하고 활기차다. 미술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환호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중의 하나인 <꿈꾸닭 ‘역사를 품은 예술’>은 벌써 횟수로 3기를 맞이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미술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전시와 연계된 체험교육과 지역 문화탐방을 통해 미술과 친해지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모든 시대의 미술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분투, 절망이 담겨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술품 감상과 연계된 체험을 통해 소중한 문화의 가치를 배워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취재 당일에는 ‘마음을 빛다’라는 테마로 아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배우고 직접 토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날은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 토기를 만들어보는 시간. 여기서 잠깐 ‘코일링 기법’은 무엇일까? ‘코일링 기법’은 손으로 점토를 둥글고 길게 말아서 포개고 합쳐서 오브제 만들어 가는 기법이다. 아 이들이 바깥에서 직접 가져온 자연물과 함께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기법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 직접 자신만의 토기를 만들어보기



프로그램 전체 진행을 맡고 계신 백지훈 학예사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백지훈 학예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① ‘꿈꾸담’이라는 사업명의 뜻이 궁금한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별다른 뜻은 없고요. (웃음) 올해가 담의 해잖아요. 그래서 ‘꿈꾸다’에 ‘담’을 집어넣어 정유년을 의미하는 뜻을 담고자 짓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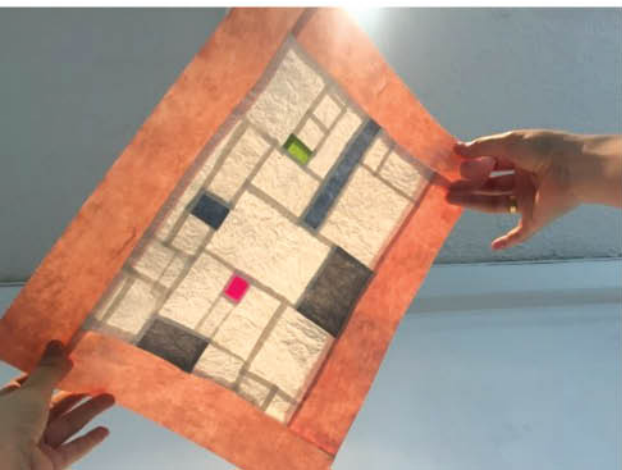
② 미술에 역사라는 테마를 결합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박물관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며 느낀 점이 전공자의 입장과 달리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미술이라는 게 막연하고 혹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이를 깨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데, 미술이 이를 제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에 역사를 결합한 것은 우리의 역사,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시각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침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미술과 함께 연계지어 습득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③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소감은 어떠한가요?

다행스럽게도 모두들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희 또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를 우선시하고 있기에 이를 중시하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가 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주곤 합니다. 오늘 교육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아이들의 소감과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이지요.



4월부터 6월까지지는 아동프로그램 1기를 진행했고, 7월부터 9월 초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11월 11일까지 아동프로그램 3기를 운영 중인데요. 아이들이 모두 미술과 역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것은 물론, 직접 체험 활동을 통해 신선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횃수로 벌써 3기를 맞이하고 있는 꿈꾸담은 올봄부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우리 고유한지의 비밀을 알아보고 한지의 유래와 장단점과 쓰임새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옛것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한지를 이용해 조선 시대 조각보를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 시간 또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자는 목적으로 5월엔 국립 나주 박물관을 다 함께 다녀오는 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아이들의 호응 또한 매우 좋았다고.

앞으로 6회의 교육을 남겨 둔 꿈꾸담, 다음 프로그램 또한 기대해보자.



나는 비혼주의자이다. 어른들은 혀를 내두를 것이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비혼을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나로서도 되도록 결혼을 지양하고, 혼자 살 수 있다면 홀로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기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아이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유치원은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글로벌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하다 못해 키.카(키즈 카페)를 다녀도 좋은 동네에 있는 키즈카페를 다녀야 한다고 벌써 아이를 낳고 기르는 친구를 통해 들었다.

이러한 치열한 양육세계에 발을 담그기도 전에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진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양육의 과정에서도 드러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희망을 발견할 때가 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다.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은 어떤 다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토요일 오후 1시, 문화재단 앞 아시아다문화 커뮤니티문화공원 주차장에서 2017년 광주 문화예술교육축제가 펼쳐졌다. 아트날라리는 이름으로 진행된 축제는 “놀 때가 제일 예뻐!”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트날라리는 부정적 의미의 날라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끼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경쾌하고 발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5개 운영단체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개 단체 그리고 창의예술학교 북구문화의 집을 포함한 총 56개 단체의 체험과 공연, 전시가 기획되었다. 운영단체, 예술가, 참여자 그리고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탈을, 예술적 일탈로 탈바꿈하여 즐길 수 있는 ‘난장’이 펼쳐졌다.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짜릿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변 흔한 재료를 갖고 탱크를 만들어 조종해본다던가, 도로를 점령하며 바닥에 낙서를 한다던가, 아무리 부딪혀도 아프지 않은 결투를 하기도 한다. 가재제를 만들어 한복과 입어보는가 하면, 무알콜의 모히토를 스스로 만들어 마셔보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참여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만난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상에 행복 씨앗 뿌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간다.

2017 아트날라리는 ‘본패를 보여주자 공연장’, ‘어지르자 광장’, ‘수다떨자 작업장’, ‘날라리 그림대회’, ‘멍때리자 언어의 계단’, ‘남남쩍쩍 군것질’로 크게 6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연을 보고 싶으면, 공연장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광장에서는 56개의 각종 체험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부스에 가서 체험할 수 있다.

‘수다떨자 작업장’에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들강달강 어린엄마 삶은 요리하다’에서는 미술과 요리를 접목하여 미혼의 양육모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발한 요리 레시피들을 전하고 있다. 또한 양림동 건축학교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양림동의 대표 건축물을 직접 만든 것을 전시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사)청년문화허브에서 운영된 <보노보노 인생학교> 프로그램 전시였다. ‘청년A’라는 익명으로, 한 청년이 취준생으로써 겪은 괴로움에 대한 고민을 편지로 전했다. <나미야 잡화점을 현실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고민편지들을 받아 답장해주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한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전해온 고민을 개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중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답장을 통해 위로를 전함으로써 이름 없는 자끼리 소통하게 된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이름이 없으므로써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명때리자 언어의 계단’에서는 각 단체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긴 어렵지만 단체운영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삶의 지혜’(협동조합산수다락)이자, ‘상상을 거르는 습관’(코끼리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장통’(화월주)을 겪으며 자라나는 것이기도 했다. 각 부스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는 <ART PILLS>였다. 미술 심리치료로, 색깔을 통해 현재 나

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준다. 처방은 그림과 시이다. 모네의 그림 한 장과 짧은 시 두 편을 처방받았다. 어렸을 적 병원놀이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란 이처럼 어렸을 적 즐겨하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가면서도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으로 곰돌이 젤리를 처방해주었다.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약 봉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산수초등학교 5학년
서세린이에요!



산수초등학교 5학년 서세린 참여자는 사전접수를 받은 일부 체험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특이한 체험들이 많아 재밌었다고 했다.

아트날라리에는 어떻게 알고 오게 참여하게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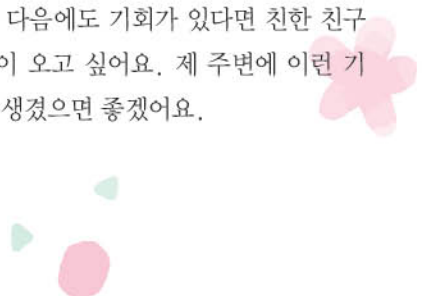
저는 (사)들꽃영토 선생님을 따라서 아트날라리라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오게 됐어요.

오늘 아트날라리에 참여해보니깐 어땠어요?

선생님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해서 혼자 돌아다녔는데, 처음 간 곳 몇 군데가 예약제라서 당황했어요.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아쉬웠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즐기는 게 아니라 스탬프를 5개 모아오는 것도 재밌었어요. 들꽃영토뿐만 아니라 영재스쿨이나 학교나 방과후 활동에서는 못해본 것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뭐였어요?

오늘 한 거 다 좋았는데, <우리 집 정원 만들기>가 제일 좋았어요. 평소에 조그만 화분을 길러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미니화분을 직접 만드는 체험이어서 화분도 꾸미고 모종도 옮겨 심었어요. 오랫동안 잘 키우고 싶어요. 다른 축제 체험 부스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평소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체험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제 주변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무로 만드는 나만의 행복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무로협동조합〉

송은호 모담지기



인류가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견고하고 균질한 속, 딱딱하지만 자르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겉, 자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나이트와 향, 돌이나 흙과 달리 스스로 자라나는 성질까지..... 바위를 굴리고 흙을 뭉개서 집을 지었던 인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가 좋은 건축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무로 된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나무로 된 가구들도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적당히 단단하고 적당히 가공하기 쉬운 나무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플라스틱과 철, 시멘트가 넘치는 현대사회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된 집과 가구를 찾는다. 그것은 자연에서 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유전자 깊이 각인되어 온 자연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무언가를 만드는 데, 나무는 좋은 재료가 된다. 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터처럼 복잡한 화학물질과 공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철이나 쇠처럼 높은 용융점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무를 자를 톱, 못을 박을 망치만 있다면 자연 속에서 얻은 재료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요즘 세상에 가구를 직접 만든다니..... 차라리 이케아 같은 대형가구 매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더 편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것’에는 그만한 애정이 깃들기 마련이다. 목공작업은 장난감 조립이나 바느질 같은 작업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이 든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한 작업을 통해 깨닫는다. 내가 작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만큼 그만한 애정이 물건에 깃든다. 그렇기에 원목공예는 물건을 만들고 동시에 물건에 애정을 세기는 과정이다.

‘피노키오’ 이야기가 떠오른다. 목수인 재패토 할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든 나무 인형 피노키오. 요정의 마법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거짓말하면 코가 늘어나는 말쑥쟁이지만 재패토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리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이 상아로 살아있는 여인을 만들어 냈다면 나무로 만들어낸 인간은 피노키오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10월 28일 토요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원목공방 ‘통’에서 진행되는 ‘피노키오 꿈다락’ 수업에 다녀왔다.

공방으로 들어서니 향긋한 나무 향이 먼저 느껴졌다. 공간 안에는 나무로 직접 제작된 책장, 의자, 연필꽂이, 장롱들로 가득했다. 모든 인테리어 소품들과 가구들은 이곳 나무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나무로 협동조합’은 2013년 10월 18일에 창립되었다. 시대적 트렌드인 웰빙문화와 함께 목조 가구와 DIY 가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목공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자 교육자, 목공장인, 전문디자이너 등이 모여서 ‘나무로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조합이 생긴 이후로 꾸준히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수업 그리고 목조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목공방 ‘통’은 원래 각화동에 있다가 최근 오치동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한다. 오늘 필자가 찾은 ‘피노키오 꿈다락’ 수업 또한 그 활동들 중 하나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작업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화체험학습 수업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화이트보드에 책상에 앉아서 하던 여타 수업과는 달리 강의실은 교실보다는 공방의 모습에 가까웠다. 나뭇가루가 주변에 한가득 쌓여있었고, 나무를 재단하고 가공하는 거대한 기계들이 서 있었다. 나무판자들은 벽을 기대고 길게 진열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두꺼운 목공용 앞치마를 입은 채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여기서 1mm 위를 남겨줘야 해요. 그래야 나무가 뜨지 않고 잘 붙어요.”

박영호 선생님께서 커다란 나무판자를 보여주시며 한창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나무 벤치의 다리와 판자를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벤치였는데도,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만드는 과정 중 1mm만 어긋나도 판자가 떠버리고 이음새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일 부지기수다. 나무벤치 하나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만큼 정교한 설계와 작업이 들어가야 했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한창 벤치의 판과 다리에 못을 박고 있었다. 아이들이 연필과 자로 못을 박을 부위를 그려놓으면 드릴로 못을 박는 것은 힘센 부모님들의 몫이었다. 총 10주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8번째 수업 때, 나무는 어느새 그럴듯한 벤치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피노키오 꿈다락’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원목 공예 수업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작업을 통해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책상과 나무의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고 목공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할 수 있다. 동시에 세상의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경험을 시켜준다. 그로 인해 노작 활동의 의미와 자아실현의 성취감 및 흥미를 얻는 것은 덤이다. 총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DIY 가구제작 기초이론, 디자인 및 도면 그리기, 재단 치수 및 절단도 작성, 도면 맞춤 제작 실습, 가구 용도에 따른 공구 사용법 교육, 칠 종류 이해 및 실습 등 간단한 나무 가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명에서 30명의 가족 단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업은 1주일에 1번,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정도 진행된다.

우리는 마을 모험가!

백마산 입구를 지나자 행복한 웃음소리가 백마산이
곳저곳으로 퍼지고 있다. ‘노는 방법을 아는 것은 행
복한 재능이다’라는 명언처럼 놀이를 만드는 마을 모
험 탐험가들을 만나러 백마산 정상에 올랐다.

〈인큐베이팅-놀이요 점빵〉

강은숙 모담지기



<놀이요 점빵> 프로그램은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노래의 ‘놀이요’와 동네에 있는 조그
마한 구멍가게의 사투리 ‘점빵’의 합성어로, 오늘날 쉽게 접하기 어려워진 놀이 발굴하고 즐겁게
노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규칙과 방법이 정해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벗
어나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개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는 놀이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서창 마을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우리들만의 놀이’를 개발하고 맘 흘리
며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해진 규칙은 없다, 놀이의 방식도 없다!

서창마을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의 방식도 정하고 규칙을 만든 놀이의 세계로 빠져보자!

놀이의 첫 수업은 <나만의 아지트>만들기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놀이 장소를 소개하였다. 어린이들은 마을에서 자주 노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학교에서 체험으로 온 적이 있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백마산을 설명하고, 각자의 아지트로 데려가 즉석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보았다. 어릴 적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에서 놀이하며 자립심과 상상력, 탐구력이 저절로 길러지는 시간이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한가위 운동회’도 서창마을에서 하면 특별하다. 재료를 바닥에 펼쳐두면 아이들 스스로 같이 협동해서 놀이하거나 작품을 만든다. 종이 박스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종이박스를 입고 돌아다닌다. 나뭇잎과 모래를 쌓아 에펠탑을 만들기도 하고, 누가 많이 쌓아 올려놓는지 시합을 하기도 한다.

물총도 우리가 직접 만든다!!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각자 원하는 모양의 물총을 직접 만들었다. 그 안에 물을 가득 넣고 몸이 젖지 않도록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여느 물총게임이라면 여기서 물총놀이가 끝났겠지만 이건 그냥 물총 게임이 아니다. 모둠을 나눠 작전본부를 정하고 적군을 소탕하고 팀의 대장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이다.

서창 바이킹이 시작되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물총을 겨누며 가상 게임을 시작했다.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물총을 쏜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작전을 짜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게다가 물총



놀이를 끝낸 후 뒷정리를 하는데 물총 안의 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텃밭에 물을 주는 어린이들을 보며 물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백마산 힐링 캠프 텐트 만들기!

3시간 동안 김장비닐봉투를 이용해 모둠별로 텐트를 만들어보았다. 자리 선택도 아이들의 몫, 꾸미는 것도 방법도 모두 아이들 스스로 모둠끼리 상의해서 결정한다. 풍선도 불어 줄에 묶고, 색종이로 모양을 만들어 텐트 위에 붙인다. 산 곳곳 바닥에 떨어진 다양한 자연 재료도 이용해 모듬 텐트가 완성되었다. 놀이 중간에 도토리나 알밤 등 비상식량을 찾아 텐트 안에 넣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을 모험가가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8회 차 중 3회 차가 남은 아이들은 ‘마을 모험가’가 되어 마을 자원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놀이문화를 개발한다. 고물상에서 얻은 재료들로 장승 로봇 만들어보기도 하며 마지막 회차에는 놀이 생활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기획자인 이보미 선생님은 휴대폰 노출이 심해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하반기만 진행되었지만, 내년에는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주로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는 방법을 아는 것은 행복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창의 예술로 하나 되어 함께 하는 시간

〈창의예술학교〉

김다래 모담지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하겠어요.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中

바야흐로 가을이다. 유난히 높고 깊은 하늘, 청명한 하늘의 빛깔, 여름의 초록을 뒤로한 채 갈색 빛으로 물든 나뭇잎들까지. 시인 윤동주가 말했듯이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다. 올 초부터 진행되었던 재단 내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 또한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하늘이 높고 청명했던 토요일 낮, 가을이 무르익어감과 함께 2017 창의 예술 학교 또한 함께 모여 가을을 나누는 시간을 맞이했다. 네 개 학교의 아이들, 학부모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을 운동회 현장을 들여다보자. 바퀴달린 학교의 학생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운동회는 시작되었다. 이어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혜영 팀장님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네 단체 모두가 함께 모여 화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창의예술학교의 지속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오이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값은 10원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번개를 맞을 확률이 크다 등’ 알쏭달쏭한 OX 퀴즈 또한 열띤 환호 속에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게임은 바로 닭싸움과 판 뒤집기. 청팀 백팀으로 나뉜인 양 팀 아이들의 적극적이고 분주한 움직임이 두 게임의 관전 포인트였다.



Q. 창의예술학교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역 브랜드 구축이 가능한 학교형 모델, 복합적 연계구성, 심화형 프로그램’

2017 창의 예술 학교는 총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바퀴달린 학교, 재미마중노리학교, 오디세이 예술학교,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 등. 네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 삶의 학교로서 “창의예술학교”라는 또 다른 학교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학교로서 삶의 터전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브랜드 구축이 가능한 학교형 모델을 지향한다. 또한 교육 목표에 따라 강의, 체험, 관람, 실연, 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 연계구성을 추구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구성 또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게 하는 심화형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위해 탐구나 체험을 바탕으로 노작교육이 강조된 경험 중심의 학교를 설립하고, 또한 예술의 활동성과 실천력을 배우는 학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창의예술학교는 공교육과 대안교육 사이 혁신교육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7 창의 예술 학교 사업 운영을 전담하고 계신 문화재단 이보라 선생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올해 사업 전반을 추진하시면서 특별히 염두하고,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있을까요?

올해 창의예술 학교는 본래 운영 방향을 토대로 4개 학교 간 네트워크에 힘쓰고, 창의예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중요시하였습니다. 4개 학교가 함께하는 교차 수업, 가을운동회, 졸업식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열린 학교로써 학교 간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운영 철학을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고, 스스로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움의 시간(배움 특강, 배움 기획, 배움 탐방)이 기획되었고, 배움 포럼을 통해 내년 사업에 대비 및 발전된 창의예술 학교가 되는 과정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2. 창의예술학교가 광주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역할을 제공해주길 바라나요?

놀이와 예술, 생활과 예술이 합일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되어가는 창의예술 학교 학생들의 모습들이 하나, 둘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기록되어있는 과정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고,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창의예술학교의 운영기간은 앞으로 2개월이 남아있다. 남은 기간 동안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학교로서 성장하길 기대해보자.

2017년 창의예술학교를 졸업합니다

〈창의예술학교〉

바퀴 달린 학교

재미마중 노리학교

오디세이 예술학교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

정두리 모담지기



부지런히 달리고 배우고 성장했던 창의예술학교 4곳(바퀴달린학교, 오디세이 예술학교, 재미마중 노리학교,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이 약 1년여간의 배움을 갖고 12월까지 진행한 활동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학교마다 특색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졸업식보다 규모는 작지만 남녀노소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은 어디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분류지만 다시 한번 ‘학교’를 다닌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지 반년도 넘었을 나이에 다시 한 번 학생이 되어보는 시간이기도 했던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창의예술학교 졸업식은 세 청년의 노래로 막이 열렸다. 수줍게 시작하며 더듬더듬 악기와 목소리를 맞춰가던 청년들이 보기 좋았다. 그들의 노래를 맞춰보는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고 진행을 해야했던 그 부담감을 떨치고 노래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알고보니 이들은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 밴드만 청년들이었다.

<바퀴달린학교>

4월부터 진행해온 건축과 텃밭 같은 자연물을 접목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학교를 운영했다. 실제 땅을 만져보면서 촉감도 전해지고 그림그리기로 느낀 것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의 어린이들은 평소 가정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톱, 용접, 드릴같은 공구를 다뤄보면서 ‘주말 건축반’에서 맘을 흘렸다.

<오디세이 예술학교>

오디세이는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이라는 뜻이다. 아이들이 광주의 오디세이에서 지나쳐갔던 장소, 상징물 등을 직접 찾아가 본다. 지역에서 가까이 친숙했던 곳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지역의 애착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구 지역 설화를 듣고 직접 연기도 해보고 옛 섬터나 중앙초교, 콜박스 사거리같은 오래된 광주의 상징물 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설명

도 들어보면서 느낀 점을 서로에게 이야기도 나눈다. 또 부모에게 편지쓰기를 해보면서 나무에 달아보기도 했다.



<재미마중 노리학교>

일명 ‘반짝반짝 골든 에이지, 다시 청춘이다.’ 반이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학교를 다녔다. 3년째 진행중인 재미마중 노리학교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던 것들,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문화예술쪽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이 학교도 동창회가 열린다.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프로그램은 가족 예술놀이, 소품, 바느질, 초상화 그리기, 예술 동창회, 지역이 보존되는 문화공간도 찾아가고 미디어아트도 구경하러 간다. 또 하나의 반은 가족반이다. 가족반은 놀이를 재발견한다. 직접 구상하면서 놀이행위를 만들어서 놀아본다. ‘물이 굴러가요’ 같은 놀이는 머리 위로 각 팀별 비닐을 들고 있으면 물이 데구르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동안에 물을 흘리지 않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마찬가지로 종이컵 쌓기, 양림 미술관 탐방, 티셔츠 만들기, 망치질하기 등의 게임을 만들어서 진행해본다. 예술로 끝나는 3가지의 놀이도 있다. 굴리면 예술, 옮기면 예술, 모으면 예술이다. 자연의 색을 찾아서 사진작가처럼 낙엽모양의 배경에 사진을 서로 찍어주기도 하며 떨어진 낙엽들을 모아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들어보기도 했다.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

학교 이름부터 길고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는 학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오름이라는 교육공간에서 작곡과 밴드반으로 나뉘어서 활동했다. 작곡반에서는 제대로 배워가자는 취지로 시인들을 모셔서 특강도 4회차 진행했다. 김복희 시인부터 각 회차 시인들과 함께 시 쓰기, 시에 대한 열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밴드반에서는 악기를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들이 통기타부터 다양한 악기를 배워보고 연습해보았다.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악기로 합을 맞추며 어우러지는 모습도 보였다.



졸업식의 꽃인 졸업증서 수여식까지 진행되니 진짜 졸업이 실감 난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또 배운 어린 학생들이 졸업증을 받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미소가 지어진다.

2017 창의예술학교 재미마중 놀이학교 반짝반짝 골든 에이지, 다시 청춘이다!

〈창의예술학교-문화약방〉

김한경 모담지기



창의예술학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원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조적 지성 발견하며, 삶의 경험을 지향하는 학교이다. 2017년 창의예술학교는 바퀴달린학교, 재미마중 노리학교, 오디세이 예술학교, 시가 들리고 음표가 읽히는 예술학교 등 네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안에서도 2-3개의 반으로 나뉜다.

이번 지면에서 다룰 공간은 문화약방이 운영하는 ‘재미마중 노리학교’의 청춘반이다. 재미마중 놀이학교는 청춘반, 청춘 예술동창회, 가족반 세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춘반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함께 광주의 문화예술공간을 들여다보며 문화예술 향유와 공감을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입문과정을 지나 ‘수요일N 문화마중’이라는 주제로 청춘반 졸업생을 중심으로 예술동창회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반은 ‘놀이의 재발견 - 애들아! 만들어서 놀장(場)’이라는 주제로, 부모님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며 놀이와 예술을 체험하게 된다.

청춘반 참여자들은 4월 입학식에서 처음 만나 매주 수요일 오전을 함께했다. 1학기에는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탐방하기도 하고,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플랫폼의 홀로그램극장을 통해 다소 생소한 개념인 미디어아트를 체험하기도 했다. 또한 남도의 대표적 미술관인 의재미술관, 연진미술관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받은 예술적 감수성을 예술창작품을 제작을 통해 발현시켜보기도 한다. 학창시절처럼 여름방학을 지나 설레는 마음으로 2학기를 준비하기도 한다.

2학기에는 광주 근교의 담양예술공간인 대담미술관과 담빛예술창고로 예술소풍을 갔다. 문화예술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작수업을 통한 예술표현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탐구와 표현이 연계된 체험은 종종 문화예술교육에서 제외되었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창조적 지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을운동회와 미디어아트에 대한 교육을 거쳐 11월 18일 졸업식을 하며 프로그램을 끝마친다.



필자가 찾아간 날은 청춘반에 참여한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1년간의 교육과정을 종료하면서 함께한 기억과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를 지키고, 운동을 즐길 것이며 좋아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와 같이 프로그램 이후 긍정적인 변화들을 겪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



해 건강한 다짐을 했다. 또 한 어르신은 재미마중 노리학교 청춘반에 대해 수업내용이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날이었다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셨다. 특히 소풍, 운동회, 만들기 수업들은 학창 시절 이후 못 접했던 순간들이라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1년을 뒤돌아보니 마냥 행복한 기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춘반의 참여자분들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이 염려된다며 아프시고, 입원하신 분 없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돼서 다행이라는 프로그램 담당자 선생님의 말

또한 어르신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이 든다는 것’과 ‘어른’에 대한 본보기를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이 어르신들께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예술강사선생님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다음 <문화약방>의 기획자 선생님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Q 재미마중 놀이학교 청춘반은 어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가요?

저희는 올해로 3년째 운영을 맡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면서 친해질 수 있는 동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는 많이 친해졌으니까 문화공간을 찾아가보기로 했죠.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면서 어르신들 저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들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참여자 스스로도 자신의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듣고 표현하게끔 합니다. 광주의 문화공간 탐방장소를 정할 때도 어르신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가령, 한 어르신께서 ‘문화전당’에 대한 말은 자주 들었지만 입구가 어딘지 모르

겠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가도 되느냐 같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18민주평화교류원 임시개방 때 어르신들과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예술에 대해 생각하고, 그 욕구에 따라 저희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Q 지난 일 년 간 어르신들과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자고 하면 멀리로만 나가려고 하잖아요. 저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대부분 남구, 동구에서 사시는 분들이시고,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주변을 먼저 탐방하기로 했어요.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사실 잘 모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 문화재단에서 하는 홀로그램극장에 와서 미디어아트에 대해서도 체험해보기도 하고, 광주하면 또 산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산에 자주 가시는데 산 근처에 있는 의재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담빛예술공간 등과 같이 미술관에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익숙한 공간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접목시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한 것이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하면 북 치고 장구 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가 아니고 그림도 보고, 전시도 보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Q 비록 마지막 수업이었지만, 오늘 수업을 보면서 기획자·예술강사 선생님들과 참여자 어르신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프로그램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한 것이지만, 강사와 학생의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강사선생님도 참여자 어르신들을 통해 배우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하고 느껴졌어요.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어르신들로 했을 때 갖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아 그런 것들이 정말 보였나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강사는 뭔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이 관계를 오히려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불편함, 불안이 점차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건 세대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란 걸 깨닫게 된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통해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요. 참여자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의 노년을 계획하고, 우리도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저희도 토요일은 가족반 수업을 하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만의 장점들도 많지만, 한 아이에 의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청춘반 어르신들 수업은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성향을 고려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수업 하나 하나에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시다가도 점점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세요. 문화예술교육은 주제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가령, 찰흙 만들기 수업이 주제라면, 찰흙을 만지면서 어렸을 적 엄마와 장독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내용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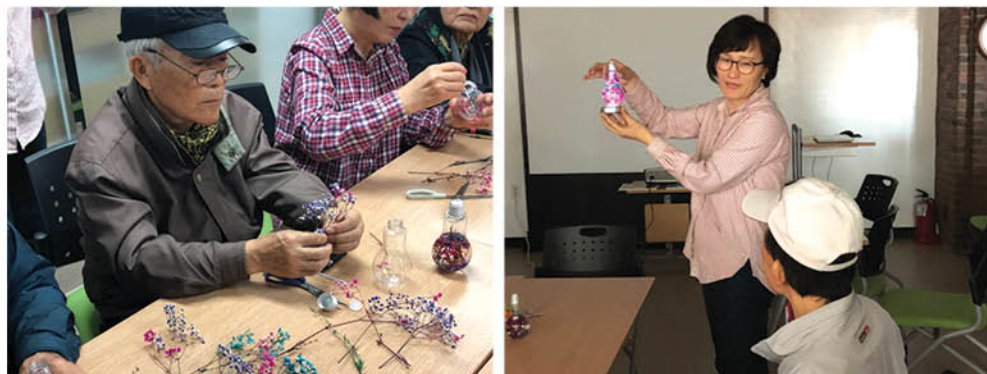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해요. 오래 축적된 삶의 경험들 때문이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더 수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지요.

Q 문화약방이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이란 것이 꼭 잘해야만 어떤 전문가의 활동만이 문화예술이 아니고 내가 향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춘반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기쁨을 배우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Q 일년 간 <청춘반>을 함께한 어르신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프신 분 없이 건강하게 프로그램 마쳐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저희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Video Kill the Radio Star?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광주시민방송〉

송은호 모담지기



우리는 낱아버린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났지
당신은 오래전에 녹음된 음악을 듣고 있었지
아마도 예전에 유행했었던 음악을 기억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여버렸어.

The Buggle_ Video kill the radio star

영국 밴드 버글스가 1979년 ‘Video kill the radio star’를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은 공감했다. 컬러 티비가 보급되었던 그 시기, 누가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라디오는 건재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며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사연들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다. 게스트들과 진행자들의 입담에 울고 웃으며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라디오를 아직까지 살아남게 해주는 것일까?



우리가 라디오와 티비 같은 대중매체를 즐기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 때문일 것이다. 외롭기에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며 라디오와 티비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티비와 라디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티비는 인간의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그리고 공간을 제약한다. 티비 앞에 앉아있으면 즐겁지만 동시에 티비가 없는 곳으로 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구속, 시각과 청각의 구속이 존재한다. 하지만 라디오는 티비에 비해 자유롭다.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소리만 듣고 있기에 외로움에 대한 갈증의 충족과 자유로움 2가지를 적절히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라디오를 즐겨듣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여기 조금 특별한 라디오 방송이 있다. JTBC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정상회담’처럼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라디오가 있다. 필자는 11월 21일 화요일 광주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 있는 광주시민방송 ‘여성결혼이민자가 만드는 마을라디오 프로그램’ 녹음현장에 다녀왔다.

‘1년 전 야호센터를 방문하였을 때는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3층으로 가니 어느새 작은 라디오 방송 녹음실이 생겨있었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복잡한 녹음장치와 방송실은 어엿한 하나의 방송국이었다. 그곳에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2005년 12월 법무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에만 1194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다고 한다.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정’이나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편견은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 광주시민방송은 그런 외국인 이민자들

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그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느꼈던 점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라디오 방송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발전을 도모한다. 흔히 다문화 게스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비정상회담처럼 ‘인권’, ‘환경’, ‘경제’, ‘정치’ 같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다문화’를 주제로 문화권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드라마 이야기’, ‘한국에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 ‘명절에 내가 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화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 각 참여자들이 생각해두었다가 만나서 ‘이런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의견을 내면 그것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생각이 나서 정해지기도 한다. 매주 화요일에 참가자들이 모이면 1시간 정도 그간의 안부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정해진 주제들로 녹음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게 된다. 녹음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목요일에 광주시민방송을 통하여 송출되게 된다. 스마트폰 어플을 깔면 폰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광주시민방송 프로그램은 총 12차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1주일에 화요일 1번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기획자이신 양지혜 선생님은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타국적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운영하고 계신다. 원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해오다가 JTBC의 ‘비정상회담’을 보고 일반인 게스트들이 출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생각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고 한다.

처음부터 광주의 여성결혼이민자분들과 연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광산구 ‘명예통장단’과 연이 닿아서 어머님들과 연결이 되었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결혼이민자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첫 멘토링 때 어머니들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라고 물으니 ‘같은 국적 어머님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떠다.’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거기서 ‘국적은 달라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고 이를 토대로 무겁지 않고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란 포맷을 정하셨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지혜 선생님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뜨거운 올림을 마치며

강은숙

모담지기로 활동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자 문득 머릿속에 스친 책 제목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동안 만난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고, 신나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프로그램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춤을 추기 위해 필요한 음악을 틀어주듯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까지 한걸음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김다래

지난 일 년의 시간동안 광주문화예술지원센터의 통신원으로서 함께 한 날들은 언제든 꺼내고 싶은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나아가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으로서 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를 실천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존립과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받은 영향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취재를 다니며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탐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사로 써내려가는 과정은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했습니다. 책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던 책 문화 공간 봄, 음악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경험하게 했던 가족 밴드 동림동락 등. 취재를 통해 오히려 제가 배우고 더 나아갈 수 있었기에 모두가 고마운 경험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광주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가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한경

통신원 활동을 돌아보니 일 년 간 약 20여 곳의 광주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만났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문화학이 전공인 대학원생이지만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난 일 년 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것들은 어떤 강의보다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었다. 누군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복사+붙여넣기식의 발전성 없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한다. 나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러한 시도 자체를 안하는 것보다 낫다. 인터뷰를 하면서 건강한 고민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들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참여자들을 보았다. 앞으로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의 행보와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참여자 분들께 감사하다. 이분들의 말이 내게 와서 선한 영향을 끼쳤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두리

모담지기 통신원으로 9개월동안 보내면서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는 ‘광주를 알아가자’였다. 광주에 살면서 잘 몰랐던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더 알고 싶었고 더 알리고 싶었다. 체험단으로 활동은 해왔지만 문화예술쪽 분야는 관심만 두었지 막상 프로그램을 취재하려고 하니 긴장되기도 하고 제대로 소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막중했다. 통신원 목걸이를 착용하고 처음 마주한 남도풍류나들이에서 선비웃입기 체험을 하면서 즐기고 활짝 웃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나 또한 재밌다고 느끼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한달에 한번은 광주를 만나고 남노소, 자연물, 배움,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단체들과 이야기하면서 다양함을 느꼈다.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를 멀게만 느끼고 전시회같은 분류에 모조리 넣어버렸던 과거가 온통 깨어지는 시간이었다. 낙엽 하나를 가지고 놀이로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과정이 나도 모르게 뿌듯했다. 앞으로도 광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발전되고 광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다.

송은호

어느새 문화재단 통신원 활동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신분으로 전공에 맞지도 않던 ‘기사쓰기’라는 분야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아니, 글을 쓰는 것은 둘째치고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것이 먼저였던 것 같다. 긴장감을 가슴 한가득 짊어지고서 첫 인터뷰와 촬영을 하러 가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 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기만 하다. 그동안 많은 문화예술교육 장소를 찾아다니며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곳은 내가 자주 다녔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골목길 안쪽 작은 공간이기도 하였고, 무심코 지나쳤던 축제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그런 곳들을 다니며 내가 몰랐던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과정.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즐거운 축제, 흥미로운 강의도 좋았지만 최고의 보물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보물을 찾던 과정은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다.

정광식

지난 봄부터 겨울까지 광주의 문화, 예술,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와 웃음과 유쾌함을 담은 작업을 했다. 보다 깊게 그리고 진득하게 공감하고 바라보지 못함이 하나의 서운함이고 보다 빈번하게 그리고 꾸준히 현장을 접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것은 즐거움이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무엇보다 경자씨와 재봉틀, 엄마꽃 팀의 취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단체 모두 살림과 일상의 엄마가 예술과 문화 앞에서 얼마나 엄마가 소녀로서 밝게 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매우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교육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담담하고 덤덤하게 다양하고 깊이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2017 통신원 뉴스레터 결과자료집 '올림8'

펴낸곳 | (재)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펴낸날 | 2017. 12.

펴낸이 | 김윤기

만든곳 | (주)데코디자인그룹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구동) 61636(우)

전 화 | 062-670-5763

팩 스 | 062-670-5769

홈페이지 | www.gjarte.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jarte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주 관 |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